

고광순 · 권기옥 · 김구 · 김마리아 · 김산 · 김상옥 · 김일택신드라 · 김용환 · 김원봉 · 김익상 · 나운규 · 남상목 · 박상진 · 신재호 · 안경신 · 안규홍 · 윤봉길
 염세주 · 윤치장 · 윤희순 · 이명하 · 이봉창 · 이육사 · 이태준 · 정정화 · 조명하 · 조소앙 · 최재형 · 한백봉 · 허은 · 홍범도 · 황에덕 · 가네코후미코

독립운동가 33인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성남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 33인
 웹툰 제작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2019 VOL.01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성남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 33인
웹툰 제작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2019 VOL.01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 김구

-김구의 유서이자 자서전인 <백범일지> 중



"꿈을 가지라우! 꿈이 없으면 송장이나 다를 게 없디 않가세! 특히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우. 못할 게 뭐가 있어!"

-권기욱 생전 인터뷰 내용 중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욱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국가를 위하고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밖으로는 개미만충의 후원도 없고, 안으로는 병이 잡아먹으려는 위급한 지경에 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잘 계획하여 다시 후일의 거사를 도모하라."

머슴 의병장 안규홍

-안규홍 후손이 남긴 <당산실기> 중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성남시가 만나본 독립운동가 33인
웹툰 제작 프로젝트
첫 번째 이야기 2019 VOL.01

발행일 2019년12월 20일
발행호수 통권 1호
발행처 (재)성남문화재단
발행인 김기영
편집인 정민혁
취재·기획·편집총괄 염기남, 김현아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00
편집디자인·인쇄 온디자인(주)
전화 031.701.0439

이 책에 수록된 사진과 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여는 글	04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기획	06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A to Z 인터뷰	
대한독립 칼럼	12
3·1운동 100주년의 의미와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작가 탐방	14
의병장 안규홍을 그린 오자유 작가	
답사	20
항일 유적 답사 & 수기	
이슈	24
웹툰 캐릭터展 '위대한 시민의 역사'	
대담 스케치	26
웹툰 연재기념 대담	
뉴스	32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웹툰 디렉토리	35
33인 독립운동가 이야기	
팀워크	102
독립운동가 웹툰을 함께 만든 사람들	
미디어	104
언론이 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 그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어느덧 한 해의 활동을 끝내고, 33명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웹툰이 성남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폭력에 평범한 민중들이 비폭력으로 맞선 3·1만세운동, 그 열망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그날의 역사에서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이들. 그들이 꿈꿨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가치로 남아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웹툰은 그 무명의 영웅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기억과 기록을 문화콘텐츠로 다시 불러오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와 국경을 가로질러 남녀노소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장르로 자리 잡은 웹툰. 새로운 한류콘텐츠로 불리는 웹툰에 우리의 가장 빛나는 역사, 독립운동의 기억과 기록을 새겨 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생생한 오늘의 역사로 다시 소환한 만화가들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올 한 해 45명의 만화가들과 함께 33명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33편의 개성 넘치는 웹툰으로 완성했습니다.

만화가만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웹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까지 웹툰 제작을 총괄한 웹툰추진단을 비롯,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자문위원단, 전시 및 행사 관계자, 청소년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그 일 년 넘는 시간 동안의 과정과 노력, 그리고 결실을 담아 기록하고자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나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는지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정 속에서 결실을 맺었는지 그 일련의 스토리를 잡지처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의 핵심인 33인 독립운동가의 웹툰을 미리보기처럼 볼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제한된 페이지 안에서 웹툰 전체를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간략하게 소개된 웹툰을 맛보시고 관심을 갖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웹툰 속에서, 독립운동가는 특별한 영웅의 아닌 그 시대를 짊어진 평범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꾸고 갈망했던 조국독립의 꿈이 오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이렇게 과거를 토대로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한 기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독립운동가 웹툰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웹툰을 본 후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것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A to Z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성남시, 새로운 100년 역사의 마중물이 되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추진한 공공문화콘텐츠 사업이다. ‘국민 만화가’로 불리는 허영만 작가와 <바람의 나라> 김진 작가 등 만화계 원로를 비롯해 40여 명의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들이 참여, 독립운동가의 삶을 웹툰으로 재탄생시켜 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다.

독립운동가 웹툰 주요 성과
(2019년 12월 기준)

33인

독립운동가

김구, 윤봉길 등
33명 독립운동가 웹툰화



45명

참여작가

그림 33명, 스토리 12명



5인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남상목, 윤치장, 이명하,
한백봉, 황애덕



100만 부

웹툰 누적부

웹툰 누적부 33작품



40만 명

관람객

22회 행사, 전시 참여·노출 수



800여 건

언론보도

기사 언론보도 수



10회

방송

SBS, MBC, KBS,
연합뉴스TV, OBS 등



12만여 건

SNS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노출



1억 1,700만 원

재원유치

경기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진행 타임라인

2018. 9.
사업계획 수립

2018. 11.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2018. 9.~11.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삶을 재조명한 문화콘텐츠 사업



100주년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대규모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성남시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한국인의 가슴에 각인될 공공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 중 첫 해인 올해는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1919년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시작점인 해이다.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비폭력 3·1만 세운동이 평화와 독립의 염원을 담아 한반도 전역에 불길처럼 일었고, 독립을 향한 일념으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를 전후로 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었다.

과연 ‘독립운동가’라는 명칭으로 한국인의 가슴에 새겨진 분은 얼마나 될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1만5,825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분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가 얼마에 이를지 알 길이 없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어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아닐까? 독립운동가를 떠올리면 교과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해 익숙해진 이름이 대부분일테니 말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독립된 민주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김구, 한민애국단 단원으로 일왕 행렬에 폭탄을 투척해 억압받던 민중의 저항정신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봉창, 독립군 최대의 승전으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의열단을 조직해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웹툰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남성 독립운동가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삶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권기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며 수차례 압록강을 건넌 정정화, 일본인이지만 재일조선인 항일운동을 지지하며 일본 제국주의 비판에 앞장섰던 가네코후미코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성남 지역의 독립운동가 발굴도 이번 프로젝트가 일군 성과 중 하나이다. 남상목, 윤치장, 이명하, 한백봉, 황애덕 등 성남시민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삶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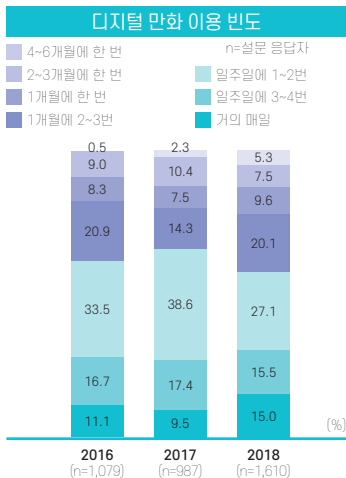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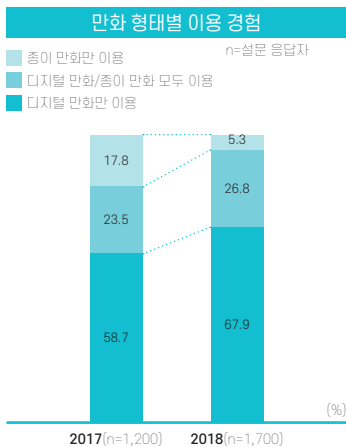


15,825명

2019년 12월 기준 독립운동 유공자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A to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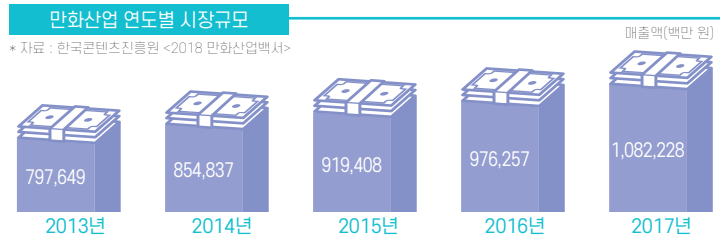
1조 원의 시장,
가장 대중적인 그릇 '웹툰'

성남문화재단이 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조명할 그릇으로 선택한 것은 '만화'. 그중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근하는 '웹툰'이다. 그렇다면 왜 웹툰이어야 했을까?

만화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긴 시간 대중과 소통해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이다.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가 말로 뜨겁게 살았던 독립운동가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가장 대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기록이 많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며 부족한 현장감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우기에도 최적의 선택이다.

'디지털 만화'라 부르는 웹툰은 해를 거듭하며 이용률이 높아지는 중이다. 웹툰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다. 2003년 포털사이트 '다음'이 세계 최초로 무료 웹툰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의 만화산업 지형도는 변화를 거듭했다. 종이 만화가 주를 이루던 만화시장에서 웹툰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디지털 만화만 이용하는 비율은 2017년 58.7%에서 2018년 67.9%로 증가했고, 디지털 만화와 종이 만화 모두 이용하는 비율 역시 23.5%에서 26.8%로 늘어났다. 디지털 만화의 시작은 만화산업 전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쳤다. 2013년 7,976억 원이었던 만화산업 매출액이 2017년 1조 822억 원까지 성장한 것도 웹툰의 영향이 컸다. 1조가 넘는 만화산업에서 약 19%를 차지하는 웹툰 시장은 접근성이나 대중성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매체는 없었다.

웹툰의 대중성 외에 또 다른 장점은 OSMU(One Source Multi Use) 특성에 따라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완구, 영상산업 등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판교밸리를 중심으로 한 ICT 기술과 웹툰 콘텐츠를 결합시킨 OSMU 성공사례를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나아가 웹툰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진행 타임라인

- 2019. 3.
성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웹툰캐릭터전」 개최
- 성남시장 광장, 1층 로비
- 2019. 4.
독립운동 현장 해외(중국)답사
- 1차: 2019.04.02.(화)~07.(일) 5박 6일
(연길, 밀산, 하얼빈 등)
- 2차: 2019.04.09.(화)~14.(일) 5박 6일
(상해, 남경, 항주, 충경 등)
- 2019. 4.~5.
관내 도서관등 웹툰 캐릭터전 순회전시

역사적 진실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추구

앞서 살펴본 취지에 공감하며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들도 흔쾌히 참여했다. <타짜> <식객> <오! 한강> 등 수많은 역작을 낸 허영만 작가, 역사를 소재로 한 순정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수십 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은 <바람의 나라>의 김진 작가,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풀>의 김금숙 작가, 용산참사와 삼성 백혈병 문제를 만화로 그린 김성희 작가, 인혁당 사형수 이야기를 포함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주로 그려온 박건웅 작가 등 한국인의 감성에 큰 영향을 준 45명의 작가가 다양한 색채와 스토리로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했다.

성남문화재단이 수십 명의 작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강조한 것은 '다양성'이다. 학습만화나 위인전에 국한되었던 독립운동가 콘텐츠와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을 만화인의 상상력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대사의 큰 줄기인 독립운동을 다루기에 작가의 상상력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홍영기 순천대학교 명예교수를 포함해 역사와 문학, 웹툰,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역사 고증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에서 험겨운 줄다리를 하며 작가마다 독립운동가 캐릭터를 만들었다. 스토리를 끌고 가는 방식도 전기나 회고록부터 직장물, 청춘물 등 다양한 웹툰 장르를 넘나들며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사를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표현해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담당 독립운동가들이 확정된 이후 치열한 삶을 살았다. 부족한 기록을 수집하고 자문위원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다가서는 작업부터 쉽지 않았다. 더욱이 웹툰이라는 특성에 맞춰 진실 너머에 있는 드라마까지 창조해야 했기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성남문화재단은 작가들의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여 중국 항일 유적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업적을 기리고 철저한 고증으로 웹툰의 완성

웹툰 캐릭터 구축 예시

웹툰 <독립을 드림>
글: 명랑 그림: 신열



김광상
사진



김광상
웹툰

웹툰 스토리 제작 예시



- 2019. 5.~8.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 공동주최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시상식 : 8월 15일 (미디어홀 / 25명 수상)
- 2019. 5.~9.
대외콘텐츠제공 전시회
-한국만화박물관 특별전시(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동주최) 5. 18. ~9. 1.
-국회도서관 중앙홀 특별전시 8. 12. ~8. 23.
- 2019. 8. 6.
성남문화재단-다음웹툰, 웹툰연재 업무협약
- 2019. 8. 8.
다음웹툰 1차 연재(16작품)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A to Z

100년 세월을 넘나든 위대한 시민의 역사

다음웹툰 어플리케이션(컬렉션판)

다음웹툰 메인화면 ▶ 컬렉션 ▶ 독립운동가 웹툰



다음웹툰 웹페이지 (메인화면)

다음웹툰 메인화면 <http://webtoon.daum.net/>

연간 프로젝트로 진행된 독립운동가 웹툰이 공개된 곳은 성남 소재의 온라인 플랫폼 '다음웹툰'. 작가들은 1월부터 사료 수집과 분석, 현장 답사, 역사 고증 등 숏한 과정을 거치며 역사적 진실을 파헤쳤고, 창작의 고통을 더해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했다. 그렇게 8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8월 8일 총 24화 분량 중 첫 화를 공개했다. 그리고는 6개월 동안 이어질 연재 일정에 맞춰 기나긴 창작 과정을 이어나갔다.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성남문화재단도 숨 가쁜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다. 완성된 독립운동가 캐릭터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섰다. 3월 1일부터 8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위대한 시민의 역사> 전시가 그 시작이었다. 캐릭터별 등신대와 해당 독립운동가를 소개한 전시는 역사 속 독립운동가들이 웹툰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호기심을 계기로 한국인의 핏줄 속에 잠들어 있던 역사 의식을 일깨웠다. 이후 판교도서관, 수정청소년수련관, 판교어린이도서관, 중원청소년수련관, 한국만화박물관 등 성남 및 경기권 내를 돌며 순회전시를 진행했다.

이처럼 성남문화재단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역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립운동가와 그 역사를 주제로 새로운 100년 역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독립운동가 웹툰은 다음웹툰에 첫 화가 공개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시의성과 국내 만화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겹쳐졌기에 수많은 언론이 일 년 내내 관심을 쏟았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100년 전 독립운동정신을 일깨운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이러한 관심과 응원을 에너지 삼아 작가들은 창작열을 더욱 불태웠다.

성남문화재단은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공공문화콘텐츠 역할을 수행하며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가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을 얻어 공공전시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였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성남시와 만화인이 협업한 문화콘텐츠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올해 새롭게 재조명한 독립운동가 웹툰을 마중물 삼아 새로운 100년 역사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진행 타임라인

- 2019. 8. 7.~18.
연재기념 전시(국회&성남시청)
-국회전시 공동주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 2019. 8. 12.
연재기념 기자간담회(성남시청)
- 2019. 8. 14.~18.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 (Bicof) 참가

인터뷰

“남과 북의 만화가가 함께 그리는 안중근 웹툰 어떨까요”

성남문화재단이 올 한 해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독립운동가 웹툰’은 45명의 만화가가 33명의 독립운동가를 웹툰에 담는다는 남다른 기획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현재 ‘다음웹툰’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33편의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스토리로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실무를 이끈 이도현 기획총괄을 만나 생각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오세영 선생 문하로 만화에 입문해, 1996년 살수쌍출 무협만화로 데뷔 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출판만화와 신문사 일러스트, 시사만평을 주로 그려왔어요. 현재는 만화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Q.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웹툰콘텐츠로 제작한다는 아이디어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대중예술가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많은 동료 만화인들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깨어 있는 만화들이 100년 전 3·1운동에 참여한 그들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다가오는 시기였기에 때마침 들려온 성남시의 시도가 반가웠습니다. 그 덕에 많은 만화인들이 성남시에서 과거를 복원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Q. 올 한 해만 33편의 웹툰을 제작하는 일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균형감 있게, 웹툰이라는 대중 장르로 발굴한 것은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계 원로작가, 중견작가, 신인작가가 어우러져 큰 만화의 집을 지은 듯, 삶에 스며드는 콘텐츠들 만들어 낸 것도 주목해 줬으면 합니다. 성남시의 독립운동가와 다수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것도 성과이지요.

Q. 프로젝트에 45명의 만화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허영만, 김진, 권가야 등 익숙한 작가들도 많던데요. 섭외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독립운동가를 그릴 작가를 찾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다. 뜻과 의지를 전하는 일에 주력하는 방법 밖에 없었지요. 우리의 역사를 웹툰에 담는다는 기획이 결국에는 각각의 인물을 담당할 작가들과 같은 뜻으로 이어져 섭외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하는 작가도 있어 뿌듯합니다.

Q. 웹툰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33편 작품 모두 애착이 갑니다. 문병란 시인의 ‘동소산의 머슴새’란 대서사시에서 소개된 머슴출신 의병장 안규홍, 대한민국 독립까지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묵묵히 꾸려간 수당 정정화, 역사적 균형감을 놓치지 않은 허영만 작가의 악산 김원봉 웹툰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독립운동가 웹툰, 202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33편 독립운동가 웹툰이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인 ‘다음웹툰’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성남시민들이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작품은 남북 작가가 함께 만드는 인류 평화를 주제로 한 안중근 웹툰이면 어떨까요?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을 소개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



3·1운동 100주년의 의미와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100년전 외친 대한독립 만세, 성남시에서 웹툰으로 다시 한 번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뜻 깊은 해이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대한독립 만세운동은 한민족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독립 만세 시위는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 겨레가 하나로 뭉쳐 일어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주권을 가진 나라임과 우리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가지는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쾌거였다. 즉, 임금이 주권을 가졌고, 백성들에게는 주권이 없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33인을 선정하여 진행한 웹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어둠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빛을 되찾기까지 애국애족 정신으로 독립을 위해 피땀 흘려 싸운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는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주춧돌이 되었다. 그런데 광복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도 조금씩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인데, 웹툰이라는 인터넷을 활용한 웹(Web)과 만화예술을 접목하여 독립운동가의 활약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의병 항전부터 8.15광복이 되기까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일반 민중이 호응하여 전개된 것이다.

1895년 10월, 일본군이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시해한 을미사변이 있고, 곧이어 그해 12월 30일 단발령이 공포되자 김하락, 심진원 등 1,600여 명의 의병이 남한산성에서 서울진공작전을 구상하였다. 이 작전은 비록 실패했지만, 의병들은 경성도로 이동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데 이어, 1907년에는 한국의 군대를 해산하면서 남한산성 안에 화약고가 있는 사찰들을 모두 폭파하였고, 내정간섭을 하기 위해 이르렀다. 이 시기에 성남 출신의 남상목 의병장이 문경, 음성, 안성, 용인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고, 윤치장 의병장은 양주 일대에서 능수능란하게 일본군을 공격하였지만, 밀고자로 인하여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던 중 감형되어 15년 만에 풀려났다. 민족의 정수인 의병은 일본의 침탈에 대해 무력으로 대항하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였다.

“대한독립 만세운동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33인을 선정하여 진행한 웹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글 윤종준_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상임위원

의병 항전에 이어 3·1운동은 인류 평등의 대의와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적 권리를 지닌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평화시위였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현재의 성남지역인 광주군 중부, 돌마, 낙생, 대왕 면을 중심으로 펼쳐진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햇불 시위운동은 4월 까지 이어졌다. 시위 형태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는 평화적 시위, 밤에는 산에서 햇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햇불시위, 곤봉을 들고 관공서 등을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 한백봉, 남태희 등이 이끈 돌마면과 낙생면의 연합시위 군중은 일본 측 기록인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3천 명으로 기록돼 있다. 중부면 탄리(지금의 수정구 일대) 주민 3백 명은 남한산성 안에 있던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를 외쳤고, 대왕면에서는 돌마면 출신의 이시종 등이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하면서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인쇄기를 보유한 숲골의 김교상은 독립에 관한 각종 문서를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만세운동 참여 군중은 당시 성남지역의 인구가 5천명도 안 되었기에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한 이명하 의병장, 2차대전

시기에 백현리(지금의 백현동)에 와서 마을 청년들을 가르친 황에스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였다.

3·1운동 이후로 1927년 2월 신간회가 창립되어 야학회, 강연회, 토론회, 체육회, 연극 활동 등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신간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도자들이 한백봉, 한순회 등이었다. 한순회는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서 독립운동자금 마련과 독립운동가 연락, 일본의 패망을 기원하는 ‘멸왜기도(滅倭祈禱)운동’을 전개하였다.

성남시에서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33인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웹툰을 제작하였고, 다음웹툰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성남시가 1970년대를 전후하여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어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고 인식될 수도 있었지만,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성남시가 호국보훈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학술적 자문을 수행하고 중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들을 탐방하고 자료를 보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널리 역사 보급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



의병장 안규홍을 그린 오자유 작가

<안담사리> 오자유 작가

대한민국 유일의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을 담다!



나이 스물에 만화계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오자유 작가. 오직 만화를 나침반 삼아 먼 길을 묵묵히 걸었다. 홀로 걸을 때도 만화와 동행한다는 생각에 그 길이 외롭지 않았다. 그렇게 만화를 사랑하던 그였지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험준한 산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가 맡은 독립운동가는 국내 유일의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 역사 고증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에서 힘겹게 작업 중인 작가를 만나러 전라남도 나주시로 향했다.

대한민국 만화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독립운동가 웹툰

오자유 작가 작업실로 들어서면 벽에 걸린 이색적인 지도 한 장이 시선에 들어온다. 유려한 필체로 써내려간 독립선언서가 한반도를 형상하고 있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 부분에서는 강직함까지 느껴진다. 내심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답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건네니 의외의 답이 돌아온다.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쓰신 겁니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며 시끄러웠거든요. 이에 비분강개하여 한반도 형태로 독립선언서를 쓰시며 독도를 함께 담으셨죠. 그리고는 자식들과 친척에게 선물했습니다. 암울한 역사일수록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자유 작가의 아버님은 비록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 선비 스타일로 서예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핏줄은 속이지 못 한다고 했던가? 독립운동가 웹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작가의 모습에서 20년 전 비분강개했던 아버님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독립운동가 웹툰 관련해 성남문화재단에서 처음 연락 받은 건 2018년 11월입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가 100분의 웹툰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내심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위인전을 떠올리며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여겼



의병장 안규홍을 그린 오자유 작가



거든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 한국인으로서 동참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볍게 여겼던 마음에 차츰 부담감이 따리를 들었다. 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이고, 그 첫 해에 33명의 독립운동가 웹툰이 진행되는, 국내 만화계에서 유래가 없던 사업이라는 의미가 새삼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 작가 명단이 공개되며 부담감은 압박감으로 커졌다고 말한다.

“연말에 참여 작가 명단이 나왔는데요. 만화계 대선배이신 허영만, 김진, 김광성, 차성진 선생님도 참여하더군요. 여기에 신진작가와 스토리 작가까지 포함해 40명 넘는 작가가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요. 허영만 선생님과 함께 작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



오자유 작가가 맡은 독립운동가는 호남의병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신출귀몰했던 의병장으로 평가 받는 안규홍 의병장이다. 국내 유일의 머슴 출신 의병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독립운동가들이 정해지고는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지 않더군요. A4 세 장 분량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성남문화재단에서 자문위원인 홍영기 교수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라는 책을 구입해 몇 번이고 살펴봤고요. 이 책에 당시의 상황과 안규홍 의병장 내용이 비교적 많이 담겨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역사의 기록이라 드라마적인 요소까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책을 보니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있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표지부터 헤지고 손때가 자욱하게 묻어 있다. 작품을 진행하며 수시로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안규홍 의병장과 그가 이끈 담사리 부대에 대해 살펴보자. 보성 출신인 안규홍 선생의 집안은 오래 전에 몰락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척이나 궁핍하게 살았다. 4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10살 무렵에는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전라남도 방언으로 ‘머슴살이’를 ‘담살이’라 불렀기에 그가 이끌던 의병대를 가리켜 ‘안담살이 의병’ 혹은 ‘담사리 부대’라 칭했다.

“책을 읽고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고 자문위원의 조언을 솔하게 들



오자유 작가 화실에는 한반도 지도로 형상화된 독립선언서가 걸려 있다. 오 작가 부친이 20여년 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작성한 것이다.

어도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답사리 부대는 머슴과 소작농을 중심으로 낮은 계급의 토착민이 주축이 된 의병대입니다. 안규홍 선생이 의병을 일으킬 생각으로 양반가와 가진 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천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해야 낫이나 곡괭이, 죽창, 몇 정 안 되는 화승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형편없는 무기를 들고 신식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싸우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공부를 거듭하며 2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공감할 수 없기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도 어려웠다. 답답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도움을 청했다. 전문가와 함께 답사리 부대가 활동했던 현장을 답사하고 싶었다. 그러면 죽음을 불사하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재단의 도움으로 홍영기 교수님과 함께 파청승첩비각과 안규홍 선생 무덤 등 여러 곳을 살폈습니다. 보성 현장을 둘러보아도 막혔던 무언가가 가시지를 앓더군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분들과 관련한 흔적이 예상 외로 없다는 것에 놀랐고, 그런 분의 무덤이 아무런 표시 없이 후손 한 분이 관리하고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투 현장을 가도 100년 전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병장 안규홍을 그린 오자유 작가



역사 고증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를 오가며 고민

작업에 매달려도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렀다. 그래도 작업실을 떠날 수 없었다. 집에 들어가는 날도 점차 줄어들었다. 언론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사가 올라왔다. 전 국민이 독립운동가 웹툰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올해는 초반부터 안규홍 의병장의 삶에 빠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첫 화를 마무리할 수 없더군요. 마침 재단에서 독립운동 관련한 중국 답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답사리 부대는 보성을 중심으로 전라도에서 활동했지만, 중국 답사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른 작가는 어떻게 작업 중인지, 스토리를 구상하며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타국에서 독립운동한 분들의 삶도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자유 작가는 중국 답사에 오르기 직전의 압박감이 최고조였다고 한다. 함께 여정을 시작한 작가 대부분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만화계 원로인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위안을 얻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답사를 시작하고 초반에는 작가들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작품 구상에 빠져 심각해 보였거든요. 이들이 지날 무렵에서야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역사 고증과 작가적 상상력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고민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죠.”

5박 6일 일정의 중국 답사 이후에는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작업이 힘들어도 함께 힘들어하는 동료 작가가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자문위원에게 웹툰 초안을 보내 감수를 받고, 수정사항을 확인하며 조금씩 작업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실만 쫓아갈 수는 없었다. 웹툰은 많은 사람이 보아야 했기에 극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었다. 역사의 기록과 작가의 상상력을 잘 연결시켜야 했다. 그래서 ‘개망이’라는 일본인 밀정 캐릭터를 등장시켜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고, 일제의 잔학상을 부각시켰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본다!

7월 들어 일본의 무역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며 100년 전 독립운동 정신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듯 보였다.

“독립운동가 웹툰은 작가 입장에서 무척이나 불편한 작업입니다. 상상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재미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을 세상으로 꺼내며 일제의 잔학상과 독립운동가의 목숨을 건 투쟁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제가 또 다른 모습의 독립운동가들이 된 느낌이 들고는 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8월 8일에 첫 화가 다음웹툰에 공개되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본다”라는 말이 회자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웹툰에 쏠리는 관심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 사명감도 커졌다.

첫 웹툰이 공개된 이후 매주 목요일에 다음 화차 웹툰이 올라갔다. 화가 거듭될수록 온라인에서 전해지는 응원의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여 커다란 에너지를 전했다.

“〈안담사리〉는 머슴 안규홍이 의병을 일으키던 1907년부터 일제에 잡혀 1년 동안의 모진 고문 끝에 숨을 거두는 1910년까지 약 3년 반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일제는 담사리 부대를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 중 가장 악랄한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일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인물 이 바로 안규홍 의병장이었거든요. 양반에게 외면 받은 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민초들이 조직한 의병대지만, 나중에는 함께 싸우겠다며 양반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자발적으로 머슴 출신 의병장의 지휘를 받겠다고 말이죠. 신분을 떠나 한 민족이 되어 항거했지만, 마지막에 담사리 부대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 죽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국인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으면 하는 의미를 담으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가 그것이죠.”

오자유 작가는 독립운동가 웹툰이 만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며, 작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칠 무렵 동료 작가와 성남문화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독립운동가 웹툰에 참여해서야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가신 분이 너무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제가 그런 기록마저 치밀하게 없애 버렸지만,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자세도 되돌아봅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한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작가들 모두 정말 잘 이겨내어 고맙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글/사진 김용일



항일 유적답사

독립운동의 위대한 역사현장을 찾아나선 웹툰작가들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항일 유적답사

“현장 답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작가들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업적이 웹툰에서 더 생생히 그려지길 기대합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사실성과 감동이 더해진 웹툰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참여작가들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간직한 주요 전적지와 임시정부 수립지를 둘러보는 항일 유적답사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고증 목적으로 기획된 이 답사는 4월 2일(화)부터 7일(일)과 4월 9일(화)부터 14일(일)까지 2차에 걸쳐 각각 5박 6일 동안 독립투사의 만주방면 항일활동 전적지를 둘러보는 일정과 임시정부 수립지 경로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참여 작가들에게 자신이 담당한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사일정을 선택하여 참가하도록 하였다.



1차 당사 만주방면 항일활동 전적지 (2019. 4. 2. ~ 4. 7.)

1일차 연길시



2019년 4월 2일 드디어 1차 답삿길에 올랐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한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연길시. 연길시가 속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 유일한 자치주로,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이후 한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항일활동의 유산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답사단은 연변대 최일 교수의 안내로 연변대학 내에 설치된 항일무명영웅기념비를 찾아, 이름 없이 스러져간 독립운동가의 넋을 기리며 각오를 단단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차 백두산~훈춘시

다음날 아침,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는 백두산에 오르며 독립운동가의 고행을 함께 느끼고 눈 덮인 천지를 둘러보았다. 백두산 답사 후 청산리대첩 8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를 둘러보고 훈춘시에 도착하였다. 일제로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조선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도시. 훈춘에서는 두만강 앞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을 살펴보고 도문으로 이동해 홍범도 장군을 주축으로 독립군이 일본군에 기념비적인 승전을 거뒀던 봉오동전투전적지를 찾았다.



4일차 해림



중국 해림으로 가서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의 순국지에서 비극적인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만주 동북지역에서 활약한 한중 항일 운동가의 업적과 청산리, 봉오동 승전 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한중우의공원에 들러, 홍영기 자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항일투쟁의 생생한 역사를 둘러볼 수 있었다.

5일차 계서

일제의 대륙침략 전쟁으로 피가 마을 날이 없었던 만주평야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서일총재항일투쟁유적지. 탄압이 가혹해질수록 더욱 조직적이고 견고해졌던 독립운동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때 북로군정서의 총재로 실질적 지도자였던 독립운동가 서일을 기리기 위해 순국지 부근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다.



6일차 하얼빈



1차 답사의 마지막 여정인 하얼빈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과 최근 재개관한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당시 안중근 의사가 쓴 총탄은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안중근 의사기념관에는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답사단은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그 업적을 다시 한 번 기리는 시간을 가지며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항일 유적답사

2차 답사

임시정부 수립지 경로 답사

(2019. 4. 9. ~ 4. 14.)



1일차 상해



4월 9일부터 이어지는 2차 답사는 민주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일정으로 상해부터 남경, 항주, 중경, 광주로 이어졌다. 첫날, 3·1운동을 계기로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상해 임시정부청사 수립지부터 항주 임시정부청사, 마지막 임시정부청사로 기록된 중경 임시정부청사까지 살펴보기 위해 출발한 2차 답사단은 상해로 먼저 향했다.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해 청사를 둘러본 후 상해시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윤봉길 의사 거사 장소인 홍구(루쉰)공원을 찾아 현화하였다.

2일차 남경

다음날에는 일본군의 남징대학살이 있었던 남경시에 방문하였다. 답사단은 잔혹한 만행에 스러져간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며 현화하고 그러한 비극이 고스란히 기록된 남경대학살기념관에서 지워지지 않은 슬픔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3~4일차 항주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 항주로 이동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항주에 머무는 동안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을 둘러보며 역사 속으로 산화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봉길 의거 직후 거처를 옮겨 자리 잡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주 청사는 1935년 11월까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 정식으로 개관하여 복원된 거주 공간과 사료를 관람할 수 있었다.

5일차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중경 연화지 청사를 찾아가기 위해 중경으로 출발한 2차 답사단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겼다. 청사를 방문하고 난 후 들른 한인거주센터. 임시정부 요인들의 거처였던 이곳엔 한인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한인들의 고달픈 삶의 흔적에 가슴 아파하며 답사단은 사진과 영상을 남겼다.



6일차 광주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정인 광주의 열사능원에서는 김명섭 자문위원의 설명을 더하여 생생한 독립운동가의 순간순간을 복기하였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그들을 떠올리며 답사에 참가한 많은 작가들이 답사기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쳐 간 중산대학과 황포군관학교도 방문하며 긴 답사의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항일 유적답사 수기

그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 죽었을까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로드로서 만난 독립운동가

33인의 만화가가 33명의 독립운동가를 그려 낸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해외 답사 2차팀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난징, 항저우, 충칭, 광저우 일정을 잡았다. 지난 9일 낮 12시 30분 상하이행 비행기는 한 시간 이상이 지연됐다. 서둘러 상하이 임정으로 달렸다. 문 닫기 직전이라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돌러보고 홍커우공원으로 이동했다. 10분을 남겨 두고 입장한 공원은 온통 연두 초록이었다.



김금숙

만화가, 그림책 작가

대표작은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 '품', '아버지의노래', '지슬', '나목', '준이오빠' 등, 그림책으로는 '애기해녀 옥랑이 미역파러 독도가요!',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등이 있다. 여러 작품이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출간되고 있다.

사흘 만에 상하이를 점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일본이 3개월이 걸려 겨우 점령한 상하이에 서 천장절을 기념한 것은 최고의 기회였다. 윤봉길은 이날을 위해 공원에서 과일을 팔며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도시락 폭탄은 민간인까지 해칠 위험이 있어 물병 폭탄을 던졌다. 홍커우공원에는 윤봉길기념관이 있다. 그 안에 거사 당일 아침의 사진 복사본이 걸려 있다. 그는 왼손에는 총을, 오른손에는 폭탄을 들고 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에 내 시선이 머물렀다. 깊고 선한 눈빛이다. 1931년 4월 29일. 윤봉길 의거 후 세 시간 만에 일본군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덮쳤다. 중국도 못 한 일을 한국인인 윤봉길이 해낸 덕에 임정 사람들을 항저우로 피신시키는 데 장제스의 배려가 있었다고 한다. 중간에 합류한 김명섭 선생님께서 이동 중에 말씀해 주셨다.

항저우 임시정부청사를 찾아 둘러보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 4천 만의 충칭에서 한인 거주 엔터인 토교에 갔다. 여기서 밥을 일궈 임정 요원들과 조선의열단 가족들이 밥을 먹고 지냈으리라.

충칭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서 일본이 폭탄을 정확한 장소에 떨어트리지 못했다. 바람이 없어 숨쉬기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70여 명의 임정 한인들이 폐암으로 죽었다. 김구의 큰아들인 김인 또한 같은 이유로 죽었다. 충칭 임정의 중요한 성과는 1941년 9월 17일 창립식을 가진 광복군을 만든 것이고, 다음해인 42년에 김원봉과 김구가 좌우합작 연합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광저우에 폭우가 쏟아져 비행기 시간이 늦춰진 덕에 조선의용대 대장이었던 김원봉 열사가 3년간 부인과 살았던 옛 집터를 찾았다.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돼 곧 사라질 예정이니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의 옛집을 봤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집 벽돌이라든 하나 짙어지고 울걸. 아쉬운 마음만을 챙겨 광저우로 향했다. 광저우에서는 황푸군관학교를 보았다.

답사 기간에 훌쩍이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바로 1927년 반국민당 정부 무장봉기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150명의 의열단 조선 청년들을 기려 세워진 광주기의열사능원의 '중조 인민 혈의정' 앞에서였다. 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무엇을 위해 죽었을까. 이들의 나이 고작 20대였다.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인천공항에 착륙했으나, 백 년의 시차 속에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두고 몸만 돌아온 듯싶었다. 나는 33인의 독립투사들 중 1918년 러시아 백의군에게 총살된 알렉산드라 김에 대한 만화를 만들고 있다. 시간은 짧지만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



*본 수기는 서울신문 '김금숙의 만화경'에도 실렸습니다.

웹툰 캐릭터展 ‘위대한 시민의 역사’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가들이 웹툰 캐릭터로 모였다

웹툰 캐릭터展

‘부제 : 위대한 시민의 역사’ 개최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진 독립운동가들이 웹툰 속 캐릭터로 다시 태어나 모였다.

국가탄생 100주년을 맞은 2019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화인들이 참여해 독립운동가 33인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공개하기에 앞서 성남시는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전을 통해 웹툰 제작 성과를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웹툰으로 탄생한 독립운동가의 모습은 물론이고, 일부 작품은 프롤로그 등을 터치스크린으로 살펴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첫 전시는 3월 1일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일주일간 개최하였다. 캐릭터전뿐 아니라 부대행사로 1일 오후 성남시청 광장에서 풍성한 문화 공연과 퍼포먼스도 진행하였다.

6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태어로즈 태권도 영웅단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웹툰작가가 함께하는 성남시판 독립신문 낭독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여러 가수의 공연과 함께 시민과 만화인의 만남도 이뤄졌다. 중견 만화인 안중결 씨는 현장 캐리커처 드로잉쇼를 통해 현장에 열기를 더했고 시민참여 걸개전을 통해 하나 되는 성남의 의미도 담아내었다. 허영만, 김진, 박건웅, 김금숙 등 독립운동가 웹툰에 참여한 작가들의 사인회와 캐리커처 행사도 진행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서현 청소년수련관



중원도서관



효창원 독립평화추진



순회전시는 이후 판교도서관, 수정청소년수련관, 판교어린이도서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등 성남 및 경기권 내를 돌며 진행했고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도 5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졌다. 독립운동가 33인의 웹툰 캐릭터 배경과 독립운동가 사진 및 소개글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캐릭터로 재탄생했는지 미리 만나보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했다. ■



웹툰 연재기념 대담

의열단을 이끈 약산 김원봉

역사의 뒤편길에 잠들어 있던 이름을 깨우다!

1919년 11월 10일 의열단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 그를 추모하는 대담이 지난 11월 2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3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가장 두려워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던 사람. 그러나 광복 이후의 행적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뒤편길로 미뤄졌다.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로 새롭게 조명하는 33명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서훈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과연 그를 향한 시대의 평가는 올바른 것일까? 이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다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대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1,270만 명이 관람하며 천만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암살>. 2015년 7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허구를 바탕으로 했음에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영웅을 세상으로 꺼냈다. 일제가 백범 김구 선생보다 많은 현상금을 걸 정도로 항일 독립투쟁에서 남다른 업적을 쌓은 사람. 의열단을 조직해 일제와 친일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약산 김원봉이 그 주인공이다.

이후에도 약산의 행적은 교과서가 아닌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밀정>에서 의열단 단장으로 분한 배우 이병헌을 통해 약산의 모습을 엿보았고, 40부작으로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몽>은 약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김원봉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 대중의 시선에 들어왔다.

하지만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그를 향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하다. 광복 이후 그의 행적이 광복 이전의 업적을 가리고 있는 탓은 아닐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담을 통해 그를 재조명 해본다.

약산 김원봉 추모 대담

일 시 : 2019년 11월 2일 오후 4시

장 소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3층 공연장

대담자 : 허영만 만화가, 김원봉 웹툰 작가

김태영 약산 김원봉 외조카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가연구소 소장

김종훈 <약산로드 7000km> 저자, 오마이뉴스 기자

정상규 <독립운동 맞습니다> 저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민간위원

* 대담영상은 성남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공개
(www.youtube.com/user/snartscenter)



웹툰 연재기념 대담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독립운동가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가연구소 소장

광복 이후 분단으로 갈린 이념 논쟁을 제쳐두고 그저 한 독립운동가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인물로, 행복한 삶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던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가연구소 심옥주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은 웹툰을 그린 허영만 작가의 고뇌를 들으며 시작되었다.

“지난해 성남시에서 독립운동가 웹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김원봉 선생과 만났습니다.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 소재를 많이 따지는데요. 처음에는 독립운동하신 많은 분 중에 손에 꼽히는 분이라 그리기가 좋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스토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내가 정말 잘 그리지 않으면 약산 선생에게 누가 되겠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몇 달 동안 이어졌죠. 그래서 월북 시점에서 이야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월북 후 약산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 길이 없거든요. 잘 모르는 것을 이야기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독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린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며 논란의 쟁점이 된 시기 이후를 담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어진 관심은 약산 선생의 외조카인 김태영 박사로 넘어갔다. 오랜 미국 생활 후 국내로 들어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약산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님께서 약산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서훈 받지 못한 분은 국내에 기념사업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11월 10일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설립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냉전 시대의 이념 문제와 맞물려 독립운동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그러한 이유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수많은 사람이 서훈되었지만, 김원봉은 명단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허영만 작가는 이렇듯 세상의 평가에 있어 무척이나 예민한 사람을 그리며 마음이 아팠다고 말한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배로 많았던 분이 약산입니다.



역사의 뒤편길에 잠들어 있던 이름을 깨우다!



김태영

약산 김원봉 외조카

당시는 연좌제가 있어 약산 이야기를 대놓고 꺼낼 수 없던 시절입니다. 조금 더 커서는 공무원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요.

아~아! 발 디딜 곳 없는 조국이어!

그것만 보아도 업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일반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거든요. 목숨까지 내 것이 아니라며 내놓으신 분입니다. 작품을 구상하며 ‘허영만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약산 선생처럼 살 수 있었겠나?’하고 자문하고는 했습니다.”

그러한 자문의 답은 “그럴 수 없다”로 연결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와 친일파를 피해 쫓기는 삶을 살고, 광복 이후 독립된 조국에 돌아와서도 쫓기는 삶은 변함없었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제가 ‘가족의 고단한 삶’으로 넘어가자 대답장 분위기가 한층 숙연해진다.

“어머니(약산의 막내 여동생)는 오빠 네 분이 총살당하는 걸 겪으셨습니다. 들고 다니는 작은 장롱에 명주 보자기로 싼 증명사진 두 장과 약산이 밀양에 와서 찍은 사진 4~5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며 바깥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영 박사는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꺼낸다. 그리고는 어린 마음에 외삼촌인 김원봉 선생은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주변에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일 년에 3~4번씩 찾아와 감시하고, 어머니를 불러서 조사하고는 했죠. 당시는 연좌제가 있어 약산 김원봉 이야기를 대놓고 꺼낼 수 없던 시절입니다. 조금 더 커서는 공무원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요.”

작가의 고뇌와 가족의 아픔까지 들으며 사회자는 웹툰 제목 ‘아아 발 디딜 곳 없는 조국이어’가 약산의 삶과 절묘하게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허영만 작가는 이러한 제목 역시 김원봉 선생에 줄곧 빠져 있었기에 생각났다고 말한다.

“독립을 위해 평생에 걸쳐 싸웠는데, 과거에는 일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복 후에는 여러 방해 때문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니 문득 제목이 떠오르더군요.”

그렇다면 작가의 시각에서 약산 선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



웹툰 연재기념 대담



허영만

만화가, 김원봉 웹툰

〈아아발 디딜 곳 없는 조국이야〉 작가

이제 그만하려는 생각을 품고 살았는데, 이번 김원봉 선생님을 조명한 작품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회를 넘겼음에도 '다시 작품에 몰두해 봐?'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어떤 작품을 하든 전체 스토리를 구상한 후 작품에 들어갑니다. 김원봉 선생 자료를 살피니 표정이 없고 웃음도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만화로 표현하며 놀라거나 웃는 모습을 그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약간 선생 감정 표현의 하이라이트를 어느 부분으로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광복 후 고국에 들어가 친일파 경찰인 노덕술에게 고문당할 때를 그 순간으로 잡았습니다.”

18세에 중국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오로지 독립운동에 매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독립한 조국에서 평생의 숙적이라 여긴 친일파에게 고문을 당했으니 그 아픔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실제로 김원봉 선생은 3일 내내 통곡하며 보냈다고 한다.

“만화를 그리며 대부분은 스토리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김원봉 선생 작품은 그림 표현부터 스토리,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할지 등 고민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50년 넘게 그림을 그렸어도 이런 적은 거의 없었죠.”

48년생인 허영만 작가는 지난해에 작품 활동을 그만두려고 했다. 올해 역시 봄까지만 하고 은퇴를 염두에 두었다. 그랬던 작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만하려는 생각을 품고 살았는데, 이번 김원봉 선생님을 조명한 작품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회를 넘겼음에도 ‘다시 작품에 몰두해봐’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반세기 동안 만화를 그리며 살아온 작가에게 역사의 뒷안길에 잠들어 있던 이름을 꺼낸 작업이 남다르게 다가왔음이 분명하다.



역사의 뒤편길에 잠들어 있던 이름을 깨우다!

이념 논쟁을 떠나 오로지 동일한 목표는 독립



김종훈

〈약산로드 7000km〉 저자
오마이뉴스 기자

의열단으로 알려진 이름에는
김원봉, 윤세주,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을 쭉~욱 살피면
한 사람도 뜨겁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약산로드 7000km〉를 집필한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는 “10년 가까이 노동 분야 전문기자로 살던 사람을 독립운동에 빠지게 만든 사람이 약산입니다.”라며 이야기를 꺼낸다.

“제가 약산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책을 쓴 이유는 미안해서입니다. 영화 〈암살〉이 나온 후에야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었던 분의 업적이 몸으로 다가왔죠. 그전까지 체계바라를 좋아했던 제가 그제야 김원봉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독립운동을 펼치고 의열단을 이끌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알려야 했죠.”

그렇게 약산의 삶을 따라가며 접한 독립운동 흔적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의열단이 탄생한 곳은 물론 1932년 난징 외곽에 세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도 자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영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한 곳임에도 안내판 하나 없었다. 1935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3기생이 훈련했던 천령사만이 사람의 발길 하나 닿지 않는 곳에 폐허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목숨 걸고 독립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며 이름 하나 기억하지 못할 정도여야 하나. 우리 독립운동가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진 의열단 내용에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는 나선 청년들이 만든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으로 알려진 이름에는 김원봉, 윤세주,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을 쭉~욱 살피면 한 사람도 뜨겁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지만, 침체기 동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였지만, 의열단에 속한 이름이 세상에 터질 때마다 국민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삶을 살다 간 분들을 이제라도 관심 갖는다는 게 감사하면서 미안합니다.”

6년간 513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직접 만나 〈독립운동 맞습니다〉라는 책을 낸 정상규 작가도 가슴 아팠던 사연을 꺼내놓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독립운동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멋진 삶을 사신 것으로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인 입장에서는 뺨짝짜리 남편이고, 자식에게도 뺨짝짜리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마저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로지 독립만 보며 살았으니까요. 그런 분을 정부가 외면하고,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더라도 오히려 비판하고 억압한다면……”

답답함에 말문이 막혔던 정상규 작가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하고도 관련된다며 대화를 이어간다.

“오늘날에도 역사는 반복될 수 있고 ‘안보’라는 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누가 과거 독립운동했던 분들처럼 나설 것인가? 내 이웃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섰던 분들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의 이번 웹툰 프로젝트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을 마치며 심옥주 소장이 한국인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를 전한다.

“광복이 있기까지 이념 논쟁을 떠나 오로지 동일한 목표는 독립이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분단으로 갈린 이념 논쟁을 제쳐두고 약산을 그저 한 독립운동가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인물로, 행복한 삶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던 아버지로 기억했으면 합니다.” ■ 글/사진 김용일



정상규

〈독립운동 맞습니다〉 저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민간위원

내 이웃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나섰던 분들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미래 웹툰작가 꿈꾸는 청소년들, 독립운동가를 다시 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재)성남문화재단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이 8월 15일 시상식을 끝으로 두 달여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를 공모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은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작 접수를 진행한데 이어, 8월 5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미디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현업 웹툰작가들이 참여하는 웹툰 워크숍과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VR퍼포먼스를 통한 축하공연, 인기 웹툰작가들이 참여한 드로잉 시범과 강연, 토크콘서트로 이어져 참여자들이 웹툰 작가로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초·중·고등부 대상 수상작 3편을 포함해 총 25편의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의 시선으로 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한 수상작들은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이재식 (사)웹툰산업협회 부회장은 "만화적 상상력으로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석하고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면서 "단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멈추지 않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역사를 해석한 부분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





토크쇼 질문 포스트잇 작성



이나래 작가 강연



영동균 작가 VR퍼포먼스



후면의 '이 사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Unsung Hero 라고 부른다.

고등부 대상작-보훈처장장

'AN UNSUNG HERO : 알려지지 않은 영웅'

김규빈, 한국애니고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압록강을 건넌 독립운동가 정정화의 삶을 조명하는 작품으로, 웹툰 속 주인공인 학생이 정정화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이다.



중등부 대상작-경기도지사상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 권기옥’

한가영, 중산중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임시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생애를 웹툰으로 간추렸다.



초등부 대상작-경기도지사상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전영은, 강남초

독립군의 가족으로 군복을 만들게 된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묵묵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보탰던 소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냈다.



성남문화재단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수상작 리스트

고등부

대상(보훈처) **김규빈** 한국애니고
최우수상(성남시) **한서현** 학익여고
우수상(문화재단)
김세현 이우고 / **박병욱** 풍덕고
김민정 중원고 / **황이진** 학교밖청소년
이희원 군포e비즈니스학교

중등부

대상(경기도) **한가영** 중산중
최우수상(성남시) **임지은** 아담중
우수상(임시정부)
심하현 해원중 / **김은소** 해원중 / **이진아** 동아중
박지민 신창중 / **박재범** 문원중

초등부

대상(경기도) **전영은** 강남초
최우수상(성남시) **윤재인** 단천초
우수상(만화영상진흥원)
남지민 안평초 / **현소율** 돈암초 / **오지호** 호성초
이승빈 동막초 / **신이현** 낙생초 / **김보경** 가원초
박지윤 윤술초 / **안성은** 혜화초 / **양서윤** 안평초

웹툰 디렉토리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01_고광순	김현민	36
02_권기옥	손상민·홍혜림	38
03_김구	백성민	40
04_김마리아	김성희	42
05_김산	박건웅	44
06_김상옥	김은희·권가야	46
07_김알렉산드라	김금숙	48
08_김용환	이정현	50
09_김원봉	허영만	52
10_김익상	명랑·신얼	54
11_나운규	전세훈	56
12_남상목	조석신·김재연	58
13_박상진	박명운	60
14_신채호	김광성	62
15_안경신	류량	64
16_안규홍	오자유	66
17_윤봉길	이민진·박찬호	68
18_윤세주	이상훈·서씨	70
19_윤치장	정윤·차현진	72
20_윤희순	권숯돌·정용연	74
21_이명하	정기영·김재성	76
22_이봉창	김수박	78
23_이육사	천명기	80
24_이태준	이필·벵커ONE	82
25_정정화	최인선	84
26_조명하	조명원	86
27_조소앙	송동근	88
28_최재형	김연승	90
29_한백봉	이규석	92
30_허은	차성진	94
31_홍범도	김진	96
32_황애덕	Nicky·★9	98
33_가네코후미코	이루다	100

01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고광순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김현민

경력사항 주간 아이큐점프 '비켜비켜' 데뷔(2000)

주요작품 Archibald 시리즈(프랑스 Sarbacane 출판사)

작품

제목 고대장

장르 지식, 판타지,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시대물, 역사, 동물, 고광순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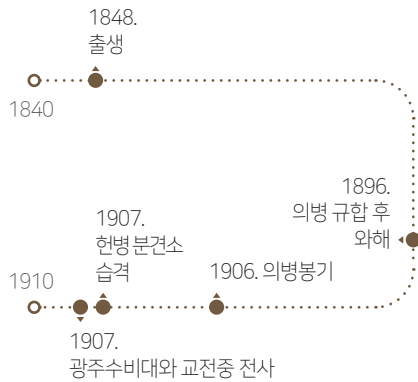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었던 문신 고경명의 후손 고광순은 선조들처럼 의병의 길로 뛰어들게 된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눈에 띈 고광순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의 암살자들에게 쫓기다가 절체절명의 순간 지리산의 포수 허씨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의 아들 허욱을 맡아 돌보게 된다. 허욱의 투인 기질을 지켜보던 용병 고제량은 허욱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고 이후 고광순 의병부대에서 핵심인물이 된다. 고광순 의병부대가 전멸당할 때 고광순은 허욱을 억지로 떠나보내고 몇 년 후 허욱은 암살단으로 활약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고광순 의병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적과 싸워온 의병 집안에서 태어나 그 뜻한 의병장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삶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없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의인화 시킨 웹툰을 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고광순 의병장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광순

1848. 2. 7.~1907. 10. 16.

서훈 : 독립장(1962)

1896년 광주와 나주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와해되었으나 1906년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 의병장으로 전남 구례에서 헌병 분견소를 습격하였으며 동년 의병 백여 명을 모아 왜적과 교전하였다. 1907년 9월 17일 지리산에서 광주수비대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인후야.



해도 멀어지고 있고
책의 야습이
있을 수도 있으니...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권기옥의 독립운동 이야기



(The Wings Of A Dream)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작가

글 손상민

경력사항 대원씨아이 제3회 슈퍼만화대상 만화소설부문 수상(1998),
'성단력3216년' 데뷔(1999),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사)웹툰협회 자문위원

주요작품 아직 꿈을 꿀 수 있나요?, 눈을 감으면

그림 홍혜림

경력사항 국가보훈처 호국문예공모 웹툰부문 우수(2017), 행정안전부
지진대피웹툰 공모전 대상(이병희 공동제작)

주요작품 그 육군중사의 중지, 바다와 등대, 폭정의 꽃

작품

제목 꿈의 날개-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시대물, 역사, 학교, 비행사, 권기옥

시놉시스

권기옥은 송의여학교 재학 시절부터 송죽회의 일원으로서 1919년 만
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제의 수차례 체포, 구속 및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20년 문일민·장덕진 등을 도와 평안남도 도
청 폭파에 성공하였으며, 상해 망명 후 도산 안창호를 만나 임시정부에
서 활동하였다. 1925년 운남육군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최초의 여
성 비행사로서 상해전쟁에서 활약하였고,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 비
행대 창설을 구상한다. 해방 이후 여성 최초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
로서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기여하여 공군의 어머니로 불린다. 1972년
까지 한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서 한국연감을 발행하였으며, 노년에
는 전 재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수백 명 학생들의 학업을 도왔다.

작가의 한마디



손상민

독립운동가 권기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최초의 여성
출판인이었고, 전 재산으로 조성하신 장학기금으로 수많은
꿈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꿈과 고결한 독립운동이,
웹툰 꿈의 날개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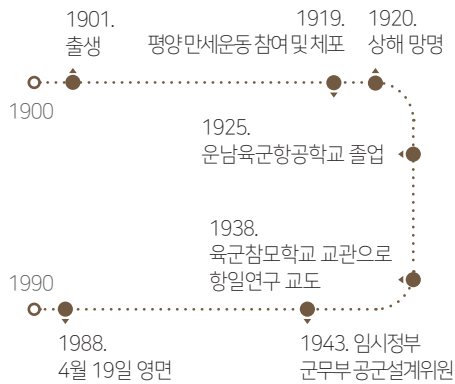


홍혜림

"사대를 앞선 영웅, 권기옥이 걸어온 몽기의 여정을 작화로나마
발자취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드림은 대륙과 하늘을 나누는
연대기가 오래오래 독자들의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대한독립...



권기욱

1901. 1. 11. ~ 1988. 4. 19.

서훈 : 독립장(1977)

1920년 음력 9월 상해 망명 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고,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로서 1932년 상해전쟁에서 활약하여 무공훈장을 받았다. 1938년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서 항일연구를 교도하고,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이자 한국애국부인회 사교부장으로 1945년 광복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구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백성민

경력사항 대한민국 출판만화 대상(1998), 한국만화가협회 작가상 (1993), 오늘의 우리만화상(2001), 경민대 겸임교수 역임
주요작품 한국만화거장전(웹툰), 장산곶매, 광대의 노래, 빠리, 권율 장군, 장길산

작품

제목 김구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구, 드라마

시놉시스

7일간의 난산 끝에 1876년 해주에서 태어난 김구는 '김창암'이라는 이름으로 일생을 시작하였다. 동학군이 되어 처음으로 '김창수'로 개명하고 인천 감옥에서 탈옥하여 '김두호'라는 이름으로 몸을 가렸으며 이후 출가하여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불교 승려를 지냈다. 다시 귀향하여 '김두래'로 살다가 강화도로 피신하여 '김구(金龜)'로 지내던 중, 안악사건으로 두 번째 감옥 생활 후에 호는 '백범(白凡)' 이름은 '김구(金九)'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임시정부 때는 '장진', '장진구'라는 이름으로 도피생활을 했고 1938년 63세때 '백범(白凡) 김구(金九)'라는 이름을 당당히 내놓고 살다가 1949년 안두희에게 저격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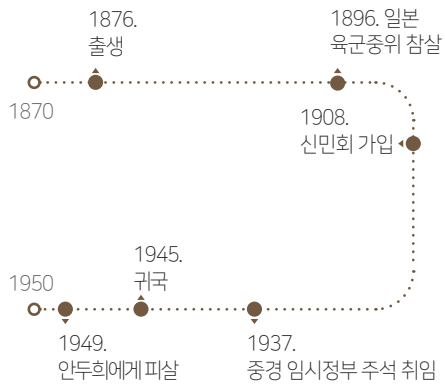
이 웹툰은 백범일지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전체의 절반 정도의 분량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백범일지 외의 안화적인 창작이 가미되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평생을 끈질기게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습을 차분하게 그려가고자 했습니다.

내 소원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김구

1876. 8. 29.~1949. 6. 26.

서훈 : 대한민국장(1962)

18세에 동학당에 가입하여 해주 동학군의 선봉이 되었고 1896년 일본 육군중위를 참살, 1908년 신민회 가입해 독립운동을 하다, 1940년 중경에서 임정 주석에 취임 후 광복군을 설치하고 교육시켰으며 입국 항전을 계획 중 1945년 11월 5일 귀국, 1949년 6월 서울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피살당하였다.



호는 '백범(白凡)',
이름은 '김구(金九)'로...



중국 상해. 임시정부 때는
끈질긴 애국의 추적을 막을리기 위해
'장진', 혹은 '장진구'란 이름으로
도피 생활을 하였는데...

1938년,
내 나이 63세 때,

드디어
백범(白凡) 김구(金九)라는 이름을
달달하게 밝히고 살기 시작했네.



처음으로 '김창수'로 개명했고

인천 감옥에서 탈옥 하여 방방 할 땐
'김두호'라는 이름으로 몸을 가렸으며



장편 할아버지는 나를 무척
귀여워하시던 친척 어른이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마리아의 독립운동 이야기

나, 김마리아

작가

글, 그림 김성희

경력사항 '희다' 데뷔(2002), 부천 교양만화상(2010, 2012)

주요작품 먼지 없는 방(삼성반도체 공장의 비밀), 내가 살던 용산,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몸쓸년, 너는 검정, 동학으로 가는 길

작품

제목 나, 김마리아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마리아, 일제강점기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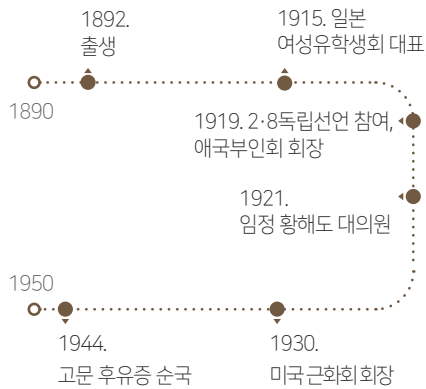
어릴적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총명하게 자라온 김마리아는 1905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독립투사의 아지트였던 김필순 삼촌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여성도 조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며 독립투사들과 뜻을 같이 한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도 조선 여자 유학생 친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귀국하여 여성의 독립운동 가담을 위해 노력하다 체포되어 고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조달하다 일본경찰에 체포, 고문에 의해 병보석으로 출감한 뒤 중국에 망명하여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근화회를 조직해 활동하고 이후 귀국,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작가의 한마디



"웹툰이 그리고 있는 시기는 우리 근현대사 중 가장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가 펼쳐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웹툰을 그린 사람들이 저에게는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이 함께 한 여성독립운동가들까지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김마리아

1892. 6. 18. ~ 1944. 3. 13.

서훈 : 독립장(1962)

1915년 일본 유학생 중 일본 여성유학생회 대표가 되어 1919년 일본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 중 체포되었다가 고문 후 석방되었다. 1921년 임시정부 황해도 대의원으로 활동, 1930년 미국에서 근화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역임하였다.



장안이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하고 3년이 될 때였다.



1919년 광복절이 하루, 적지않은 광복군이 준비했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산의 독립운동 이야기

아리랑

작가

글, 그림 박건웅

경력사항 '꽃' 데뷔(2001),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신인상(2002),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대상(2014), 오늘의 우리 만화상
(2010), 대한민국만화대상 신인상(2003), 프랑스 이탈리아
아 출간 경력

주요작품 그해 봄, 자전거 타는 대통령, 노근리 이야기, 짐승의 시간

작품

제목 아리랑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산, 아리랑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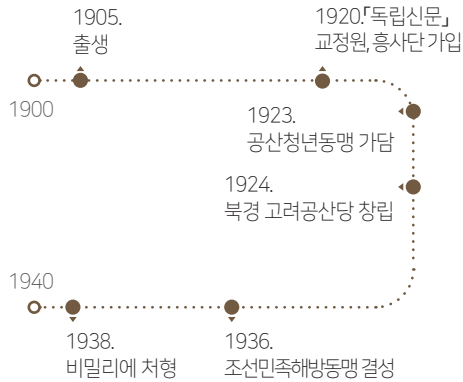
중국공산당이 대장정을 끝마치고 도착한 연안지역. 그곳에서 취재 및 집필활동을 하고 있던 기자 님웨일즈는 노신대학교도서관에서 영문 책을 빌려가던 한 조선인의 존재를 알게 된다.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답신이 없던 어느 날 키 큰 조선인 장지락이 찾아와서 금강산의 이름을 따서 김산이란 가명으로 자신이 겪어온 옛 이야기들을 차례로 풀어낸다. 웨일즈는 이를 토대로 『아리랑의 노래』(1941)를 출판하였다.

작가의 한마디



여 이릉 모를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산을 처음 알게 된 건 대학시절 우연히 읽었던 그의 삶을 다룬 아리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속 깊은 창고에 놓였던 책을 다시 꺼내 읽었고 또 다른 아리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꿈꿔온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운동과 함께 살았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릉 모를 수많은 죽음을 자난 70년동안 아령의 굴레를 덧입혀 우린 가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자식없으며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였을 안다가온 죽음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났지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웹툰『아리랑』을 통해 영원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산
(본명 장지락)

1905. 3.~1938.

서훈 : 애국장(2005)

1920년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교정원으로 있으면서 흥사단에 가입, 1923년 공산청년동맹에 가담하고 1924년 북경 고려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중국 광둥에서 의열단에 가입하고 1930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하였고 1937년에 동 동맹의 중국 섬강녕 소비에트 지구 주재 대표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상옥의 독립운동 이야기

김상옥

작가

글 김은희

경력사항 월간 르네상스 데뷔(1990)

주요작품 M&M, 인디안 섬머, 나비가 없는 세상, 아쿠아마린

그림 권가야

경력사항 오늘의 우리만화상(1999, 2009)

주요작품 남한산성, 해와 달, 남자이야기

작품

제목 김상옥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상옥, 극화체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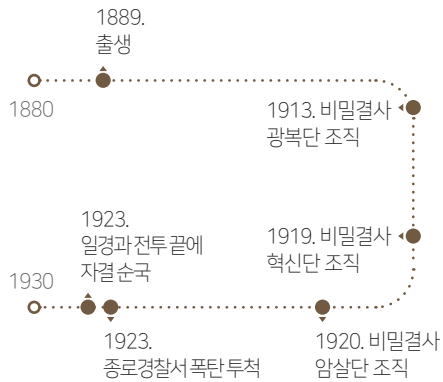
1889년 1월 5일 태어난 김상옥. 그의 나라 조선은 늙고 병들어 상옥의 집만큼이나 초라했고 그가 태어난 세상은 요동치고 있었다. 더 이상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일 수 없었다. 파란만장한 조선의 역사와 함께 격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상옥은 배움에 남다른 정열을 보였고 1913년부터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펼쳐왔다. 1920년 암살단을 조직, 10월에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의열단에 가입하고 거사를 준비하여 1922년 11월말 서울로 돌아와 준비를 마무리 한다. 드디어 1923년 1월 12일 밤 8시경 종로경찰서 서편 창문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다. 며칠간의 추격전 끝에 4백여 명의 일경과 홀로 총격전을 벌이던 그는 마지막 탄환으로 자결 순국하여 생을 마감한다.

작가의 한마디



"웹툰을 그리며 그 저절했던 사대를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모두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상옥은 사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조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자각한 인물이었습니다."





1913. 비밀결사
광복단 조직

1923.
일경과 전투 끝에
자결 순국

1919. 비밀결사 혁신단 조직

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1920. 비밀결사
암살단 조직

김상옥

1889. 1. 5.~1923. 1. 22.

서훈 : 대통령장(1962)

1913년 경북 풍기에서 비밀결사 광복단을 조직하였고 1920년 암살단을 조직하여 일제 고관 처단을 추진하였다. 1923년 당시 일제 경찰청의 중심부이자 독립운동가 검거와 탄압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 수백명의 일경과 홀로 전투 끝에 자결 순국을 택하였다.



와
아 와



홍계훈이 전병준을 만나
최정계혁안을 임금에게
상신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동학 농민군은
서울로의 진격 계획을
전고 전주성에서
실행하였다.



청병과 함께
일본군도 청병
하여 주십시오

음...그건
곧관하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알렉산드라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김금숙

경력사항 프랑스 Artemisia상 최종후보 (2015),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최우수상 (2016), 프랑스 ACBD 아시아 상 최종후보 (2019), 휴머니티 만화상 특별상 (2019), 레드어워드 '주목할 만한 기록' 상 (2019), 다수작품 유럽, 북미, 남미, 일본, 중동 출간
주요작품 아버지의 노래, 꼬쟁이, 지슬, 나목, 풀, 준이 오빠,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작품

제목 시베리아의 딸, 김 알렉산드라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 알렉산드라, 사회주의자, 혁명가

시놉시스

1923년 블라디보스톡 감옥. 러시아 백위군의 한 군인이 탈영하여 수감되었다. 어느 이주 한인과 같은 감옥에서 지내던 중 많은 이를 죽인 강박으로 악몽에 시달리다가 한인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 그는 사형 집행자였고 김알렉산드라(예칭: 쉼라)를 총살한 장본인이었다. 이후 쉼라의 드라마 같은 일생이 펼쳐진다. 철도노동의 전설적인 존재 아버지,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 노동자를 위한 활동과 항일 활동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다시 사형 집행자 유제프의 증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100년 후, 대한민국 노동자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작가의 한마디



"100여 년 전, 우랄 지방의 벌목장에서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혁명가의 삶을 시작한 알렉산드라 김은 20년 전 프랑스에서 만화 통번역을 시작하여 만화가가 된 내 삶을 비추보게 했습니다. 1949년 한인사회당 조직을 주도하고 100인의 조선인 적군을 구성해 일제에 맞서 항쟁하다 백군에 의해 처형당한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 국경과 민족, 성을 넘어 자식으로, 형제 자매로, 아내로, 엄마로, 동지로서, 혁명가로 살다 간 아름다운 사랑. 폭풍의 역사속에 잊혀져 간 그녀를 만화로 소환하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혁명은 짧을 수록 좋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동지들이여, 안녕.

나의 사랑 보리스, 디미트리, 안녕.

안녕, 블라디보스톡—



1885. 출생

1880

1914. 러시아에서 통역관

1918. 체포되어 총살

1920

1918. 이동휘 석방운동, 한인사회당 창립



김일석산드라 스타케비치

1885. 2. 22. ~ 1918. 9. 16.

서훈 : 애국장(2009)

1914년 말부터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러시아 우랄 지방 대공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진력했다. 1917년 초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담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편에 섰으며 1918년 한인 사회주의정당 한인사회당을 창립하여 항일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용환의 독립운동 이야기

파락호 김용환

작가

글, 그림 이정현

경력사항 '내 친구 다은이' 데뷔(2004), (사)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일본군 위안부 만화 유럽전 기획(2015)

주요작품 카툰 테라피, 함께 걸어요 비단길, 버락 오바마 대통령 1%의
용기와 희망

작품

제목 파락호, 김용환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파락호, 김용환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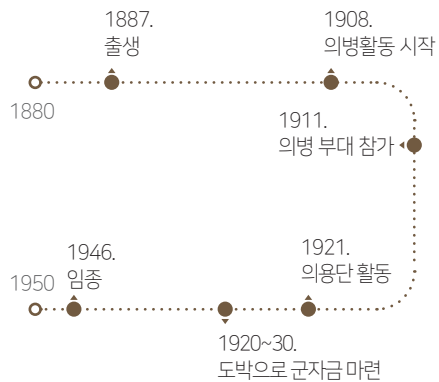
퇴계 이황의 제자로 영남학파의 거두였던 학봉 김성일의 13대 종
손 김용환은 흥선대원군 이하응, 형평사 운동의 투사 김남수와 함께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조선의 3대 파락호로 불렸다. 하지만 진
실은 달랐다. 1896년 할아버지 서산 김홍락이 일경에 의해 큰 수모
를 겪은 뒤부터 복수를 다짐하였고, 이후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모금하기 위해 겉으로는 파락호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 조국의 독립
후 1946년 사망하는 순간까지 진실을 숨기고 있었으나, 절친했던 동
지 하중환이 쓴 제문에 의해 그의 독립운동 행적이 밝혀지고 1995
년 광복절에 건국훈장을 수상한다. 장녀 김후웅이 그 기념식에서
<우리 아배 참봉 나으리>를 읽으며 아버지를 회상한다.

작가의 한마디



"드라봉의 세상입니다. 어쩔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전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김용환이라는 독립운동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가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활동을 숨기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단지 파락호가 아닌 당당한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더욱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김홍환

1887. 2. 27.~1946. 7. 10.

서훈 : 애족장(1995)

독립운동가 김홍락의 손자였으며 자는 여현. 1908년 의병부대에 참가, 1911년에는 적극적인 의병 항쟁을 전개, 1921년에는 의용단 가입,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한다. 이후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척, 재산을 만주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조달하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원봉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허영만

경력사상 한국일보 신인만화공모전 당선(1974), 제7회 고바우 만화상(2007),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만화 부문(2009)

주요작품 식객, 타짜, 커피 한잔 할까요?, 각시탈

작품

제목 아아 발디딜 곳 없는 조국이야

장르 지식,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원봉, 시대물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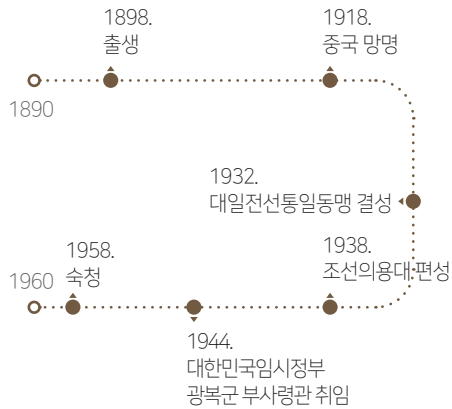
1919년 군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 남경에 와 있었던 약산(김원봉)은 조선의 만세 운동과 3·1운동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를 보고 미온적인 태도의 독립운동에 안타까움을 갖는다. 그리하여 고모부인 황상규와 무력으로 항거할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의열단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다. 수백명의 독립투사가 거사를 일으켰고 산화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원봉은 중국혁명세력과 손을 잡고 황포군관학교에서 조선청년의 조직적인 군사 훈련을 시킨다. 그러나 중국 정권이 바뀌자 위험을 피해 나와 무력항쟁을 계속한다. 광복을 찾고 국내에서 발 디딜 곳이 없던 원봉은 월북을 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김원봉 국화를 알고나서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림체의 문제였습니다. 종래처럼 울긋불긋한 국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원봉을 어떻게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가였습니다. 다행히 두 가지 문제는 모두 해결 되었습니다. 그림도 만족스러웠고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김원봉 선생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국화의 평가와 관계없이 저는 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김원봉

1898.~1958.

서훈: -

호는 약산(若山). 1918년 중국 망명생활을 시작하며 의열단·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1932년에는 대일전선통일동맹 결성, 1944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해방 후 월북하여 김구와 함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1958년 김일성에게 숙청되었다.



10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김익상의 독립운동 이야기

독립을 드림

작가

글 명랑

주요작품 금붕어, 악역의 구원자, 라면대통령

그림 신얼

주요작품 라면대통령, 다정중합병원

작품

제목 독립을 드림

장르 판타지, 코믹,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김익상, 회기물, 의열단

시놉시스

한때는 수재라 불렸던 김익상은 현재 취업 준비를 핑계로 백수로 지내는 27세,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로 살아가고 있다.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야식 배달을 나선 익상은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후배 민주와 마주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도망치게 된다. 되던 일 하나 없던 그날 밤. 심지어 오토바이의 기름마저 떨어지게 되고 낯선 길에서 방황하던 중 괴기한 기운을 풍기는 드림PC방을 발견하기 이르는 익상.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고자 그곳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던 익상은 갑작스레 일어난 정전으로 정신을 차리지만 문을 열고 나온 곳은 더 이상 PC방이 아닌 복경. 그것도 1921년. 어느 골목이었다. 김익상은 그곳에서 의열단장인 김원봉을 만나게 되고 열렬결에 의열단 가입까지 하며 어느덧 독립운동가 김익상의 삶을 산다.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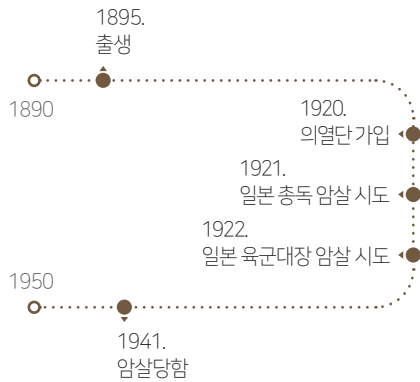
명랑



신얼

"웹툰 독립을 드림을 만든 명랑과 신얼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웹툰화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독립을 드림이라는 웹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약 과거의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라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작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아주 멀게만 느껴졌던 과거 속 인물들이 제 다투, 심지어는 저보다 훨씬 어린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웹툰을 통해 과거 조국을 위해 희생했던 또 다른 나의 친구들과 조국은 친근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김익상

1895.~1941. 8.

서훈 : 대통령장(1962)

1920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만주에 갔으나 중국의 남북전쟁으로 실패하고 의열단에 가입한다. 1921년 김원봉에게 사이토 마코토 총독 암살 밀령을 받고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하여 폭탄을 던졌고 1922년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의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체포되어 21년 옥고를 치렀으나 일본 형사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11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나운규의 독립운동 이야기

조선 키네마 CHOSEN CINEMA

작가

글, 그림 전세훈

경력사항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2007), 제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청소년우수만화상(2006)

주요작품 노노보이, 슈팅, 신의 가면, 손금, 뼈뺀

작품

제목 조선키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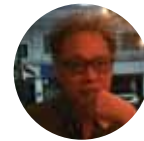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무성영화, 나운규, 아리랑

시놉시스

회령만세 사건의 주동자로 수배를 피해 시베리아를 헤매던 중 병으로 입대한 나운규. 동료가 총 맞아 죽자 도주하여 북간도 독립군 도판부에 입대한다. 나이드 독립군으로부터 공부해서 나라를 위한 "더 큰 독립운동을 하게"란 조언을 듣는다. 현대에 사는 현우는 아리랑 필름을 찾고 있다. 나운규는 극단에 입단해서 배우 활동 시작하고 조선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그는 또 다른 3·1 운동처럼 경성 한복판에 항일 영화 아리랑을 제작 상영하고 관객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영화 제작을 하다가 폐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현우는 여전히 아리랑 필름의 행방을 찾고 있다.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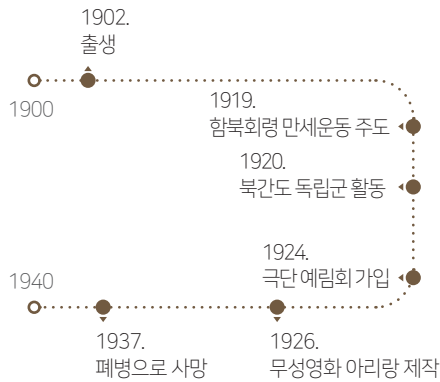
회령 만세 사건의 주동자로 수배를 피해 러시아를 헤매다
청산리 독립군 도판부에 가담한 게 빌미가 되어
청진 형무소에서 복역한 나운규. 형무소에서 춘사라는
호를 받은 그는 무성영화에 뛰어들어 중독부 낙성 기념일에
맞춰 영화 아리랑을 개봉합니다. 한국영화 탄생 100년.
영국한 무성의 사대에 민족의 소리를 내었던
아리랑의 필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웹툰으로 확인하세요~



아베 요시나에
총독부 감열관



동사 나운규



나운규

1902. 10. 27.~1937. 8. 9.

서훈 : 애국장(1993)

1919년 함북 회령에서 3·1운동에 참가하고 1920년 북간도 독립군에 가입하여 철도, 통신 등 일제의 기간시설 파괴, 군자금 모집, 항일 격문 운반 등의 활동을 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2년을 받았으며, 출옥 후에도 「아리랑」 등 저항 영화를 제작 감독하였다.



12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남상목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조석신

그림 김재연

경력사항 만화왕국 신인공모전 대상(1989), 영점프 신인공모전 대상 (1996)

주요작품 스트리트, 짜장면, 쇠환사

작품

제목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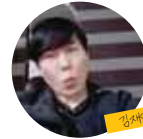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용인의병장, 경기일대 항일투쟁, 남상목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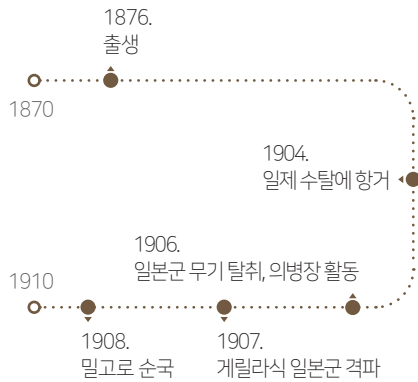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군 낙성면 느릿골.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밤. 일본헌 병대 병사들과 한병장교 사카이, 친일파이자 일본군 끄나풀인 배병천 이 중무장을 하고 개천 쪽으로 접근한다. 사카이는 배병천으로부터 남상목이 온다는 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총알을 장전한다. 남상목은 순간 당황하지만 품에서 권총을 꺼내 총격전으로 벌이다가 총에 맞고 물속으로 들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펼쳐지는 상목의 삶. 일본에 대항하고 의병으로 일어서 무장 의병을 이끌고 일본 경찰, 군인과 전투를 벌인다. 그러다가 다시 1908년 강기슭으로 올라온 상목은 체포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다.

작가의 한마디



"남상목 의병장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고 식민통치가 잔혹해지자 경기도 한고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장 투쟁을 이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남상목 의병장의 위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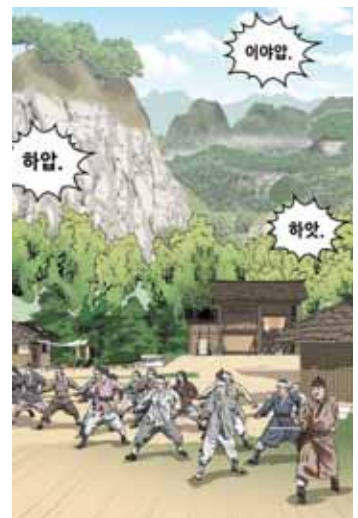


남상묵

1876. 4. 12.~1908. 11. 4.

서훈 : 애국장(1990)

1907년 7월 경기도 용인군 용천곡을 중심으로 하는 의병장으로 의병 50여명을 지휘하여 구식총 40정, 양총 10정 등으로 무장하여 음성, 안성, 죽산 등지에서 일군과 전투를 하고 전봉규 의병진과 합세하여 천안, 천곡 등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밀고로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3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박상진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박명운

경력사항 카카오/네이버 외 8개 플랫폼 연재중,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연재 중

주요작품 만화 토지(17권), 수화페월, 아슬아슬

작품

제목 잊혀진 영웅

장르 드라마, 액션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액션, 박명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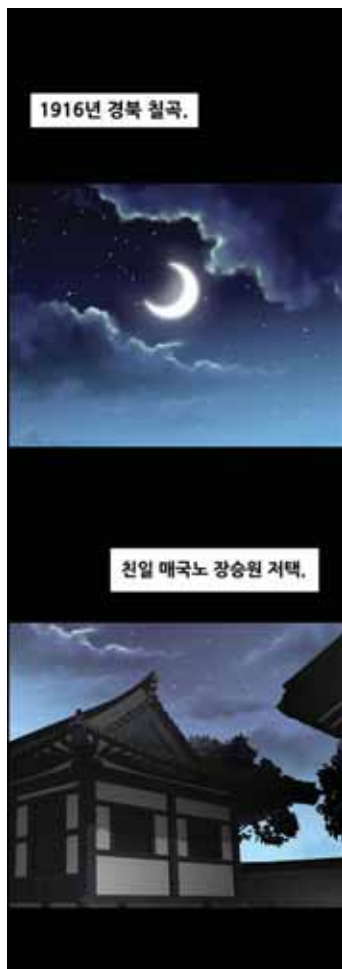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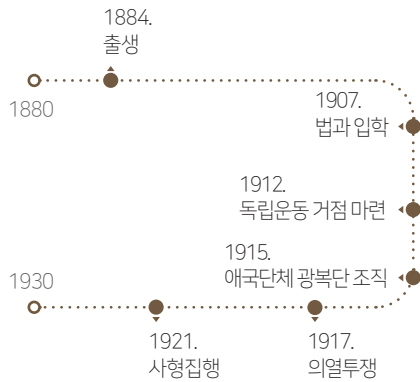
박상진과 최영백은 서로 사랑하여 좋은 혼처도 마다하고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 일제의 만행에 학문을 닦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 1899년 16세의 박상진은 왕산 허위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박상진도 스승을 도와 의병이 되고자 했으나 허위는 반대, 만류하여 양정숙에 입학한다. 스승 왕산이 체포되어 1908년 교수형을 당하자 자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다. 1910년 졸업한 후 판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부임을 거부하고 곡물 무역상인 상덕태상회를 차려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는다. 대한광복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 총사령을 맡게 되어 조선 최대독립군 단체로 활약한다. 모친의 장례현장에서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8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00년이 지난 2019년,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인양 도발을 하고 있고 정재계(政財界)엔 친일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매진할 때 일본기업이 내복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끝도 없이 줄을 서있는 이들을 볼 때 아직도 개인의 생각과 선택일 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국광복을 하자는 것은 하늘과 사랑의 같은 뜻이니 이 큰 죄를 성토했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이 글은 친일파를 저단하고자 한 광복회원의 글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는 많은 국민들이 숙히 깨어나 친일파들을 경계하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기를..."





박상진

1884. 12. 7. ~ 1921. 8. 11.

서훈 : 독립장(1963)

1912년 대구에서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였고 1915년 영주에서 애국단체 광복단을 조직하였으며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맡았다. 1917년 친일 부호배 처단 및 군자금 모집 활동 등 의열투쟁을 전개하다 1921년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집행되었다.



박상진이 태어난지 얼마 후, 상진 부(父)의 형님인 박시룡이 찾아왔다.



14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신채호의 독립운동 이야기

혁명의 이름으로

작가

글, 그림 김광성

경력사항 한국만화가협회상 신인상(1993), 대한민국만화대상 우수상(2003)

주요작품 SM리퍼블릭, 오래 전 서울

작품

제목 혁명의 이름으로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일제시대, 신채호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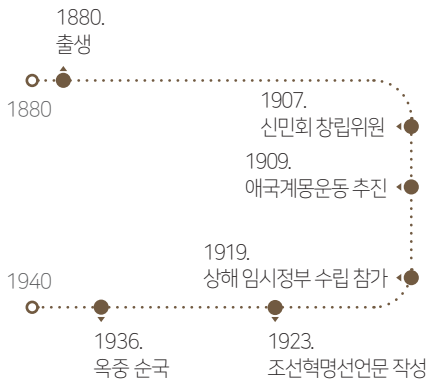
태극 깃발, 붓물 터지듯 화면을 채우는 군중. 대한독립만세 함성. 감격의 순간이지만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미온적이고 나약하다며 독립선언서를 찢어버리는 단재 신채호. 그 광경을 목도하며 동조의 눈길을 보내는 동지들. 경성. 3·1운동 이후, 일본 경찰의 진압과 색출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 수록 산발적인 만세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충성도 울려 퍼졌다. 그러다 박자혜를 만나 애정을 느끼고 보호하다가 일본 끄나풀을 건드려 독립군 혐의로 모진 고문을 당한다. 이후 만주로 가서 의열단으로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약하다 15년형을 받고 옥중에서 병사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인생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 인명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군은 결의일 때 인간만이 지니는 존엄까지 느껴지듯이..
먼저 바람 가득한 세상에서 삶의 의욕도 없이
부조처럼 떠돌던 웹툰 속 상철이 운명처럼 빨려 들어간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단재였습니다.
조선을 통제로 삼기려는 일제와 나라를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친일파에 맞서 비분강개하는 단재로부터 상철은
자신이 바라던 진정한 영웅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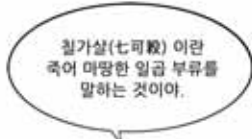


신채호

1880. 11. 7.~1936. 2. 21.

서훈 : 대통령장(1962)

1907년 신민회 창립위원에 참가하고 1909년에는 청년학우회를 발기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 1923년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북경에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대련감옥에서 복역 중 5년만인 1936년 2월 11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5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안경신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류량

주요작품 러브바이러스, 씬싱

작품

제목 꽃신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여성, 드라마, 안경신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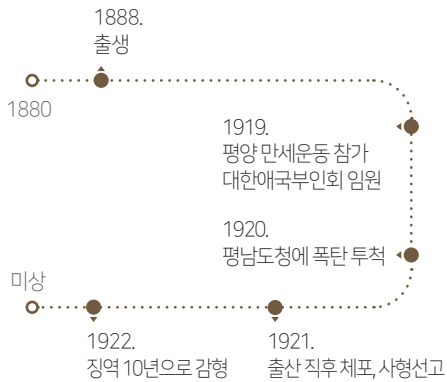
1921년 3월 함경남도. 난산 끝에 아이를 출산한 안경신은 몸을 추스르고 있었으나 실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 최용주의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출산 12일째 아이와 함께 체포되지만 경신은 밀고자가 연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어린 시절 죽은 여동생이 살아 돌아온 듯하여 친자매나 다름없이 애뜻하게 돌보던 연수의 배신에 놀라 상념에 젖는다. 1913년 평안남도 평원군. 연수를 처음 봤을 때는 어미 잃은 배고픈 짐승 같았다. 그런 아이를 동생 삼아 키웠던 지난 날과 더불어 여자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친 무장항일 활동의 과거를 회상한다.

작가의 한마디



만경신은 입산부의 몸으로 평강도정에 폭탄 거사를 일으킨 강인한 여성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꽃신에서는 선생을 영웅적인 위인으로만 표현하기보다는 영웅했던 그 시절에 한 사람으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고난을 겪으며 어떻게 독립투사로 변모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연수는 그 시대의 다수였으리라 짐작되는 나약하고 평범한 인물로 독립운동의 위대함을 비추어줍니다.





안경신

1888. 7. 22. ~미상

서훈 : 독립장(1962)

1919년 평양 만세운동 참가하였고 광복군으로서 1919년 7월 미 국회의원 동양시찰단 방한 당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려 안주읍에서 일인 경부 공동을 사살하였다.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교통부원으로 임시정부에 군자금 모금하여 전달, 1920년 광복군총영 결사대에 참가해 평남도청 등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몇달 뒤 대한애국부인회 교통부원으로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6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안규홍의 독립운동 이야기

안담사리

안규홍 의병일지

작가

글, 그림 오자유

경력사항 '백로' 데뷔(1994)

주요작품 윤승태, 산군 활, 자귀:짐승의 발자국

작품

제목 안담사리

장르 드라마, 액션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의병, 안담사리, 안규홍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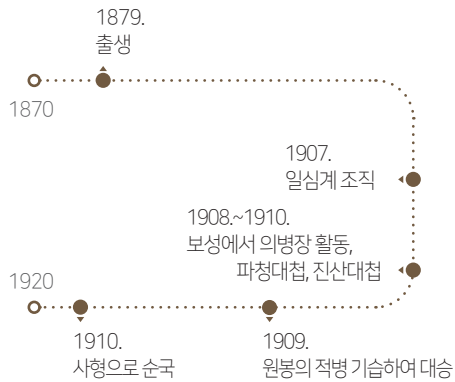
전남 보성군에서 태어난 안규홍은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봉덕면으로 이주한다. 그의 나이 열 살 무렵, 곤궁한 생활에 박제현의 집에서 담사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의 성을 붙여 안담사리라 불렀다. 담사리는 머슴의 전라도 방언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안규홍이 이끄는 의병부대를 담사리 부대로 불렀다. 그의 부대는 화력과 조직력이 우세한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지리적 이점이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기습 공격을 주로 하였다. 대장 안규홍이 이끄는 부대는 전형적인 평민 의병부대였으나 양반과 유생도 참여하여 신분을 뛰어넘은 통합을 이루고 일본군과 처절히 싸웠다.

작가의 한마디



"1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해.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결.
전남 보성 마승 출신 의병장 안규홍과 안담사리 부대
사랑들의 불꽃처럼 타 올랐던 2년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확인해 주세요."





안규홍

1879. 4. 10.~1910. 6. 22.

서훈 : 독립장(1963)

1907년 일심계를 조직하고 양반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조달 받아 병력을 키웠다. 1908년 전남 보성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1908-1910년 전라도 일대에서 일군과 교전하여 파청대첩, 진산대첩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10년 일본군에 피체되어 대구감옥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17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윤봉길의 독립운동 이야기

4.29

작가

글 이민진

주요작품 소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림 박찬호

경력사항 피리부는 남자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영문판 출간, LA한
국문화원 원화전시

주요작품 소년전, 피리부는 남자, 어크로서

작품

제목 4.29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윤봉길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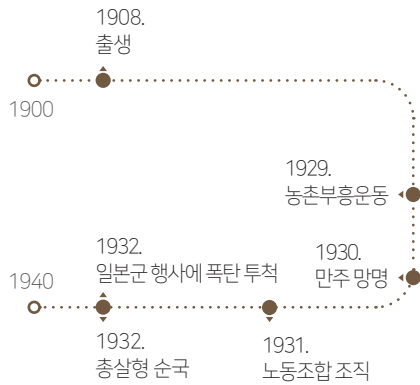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구공원. 일본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조선의 젊은 청년이 입장 검문에 불
잡힌다. 청년은 군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행사장에 유유히 입장한
다. 행사는 절정에 달하고 기미가요가 울려 퍼진다. 그때, 폭탄의 굉음이
울려 퍼진다. 일본 고위간부들의 몸에서 비명과 불이 피어오른다. 조선
의 젊은 청년 윤봉길. 그가 어떻게 그 곳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그가 수
통(도시락)폭탄을 던지기 전까지의 여정. 그가 떠나오고 거친 수많은 인
연을 풀어내는 짧지만 깊은 이야기이다.

작가의 한마디



"4월29일. 윤봉길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의거일입니다. 만24세의 젊은 청년.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이며,
아직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고 타국 상해에서
물려 퍼지게 한 날 4.29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윤봉길

1908. 6. 21.~1932. 12. 19.

서훈 : 대한민국장(1962)

193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모직공장직공, 세탁소, 외교원을 거쳐 김구를 만나 한인에 국단에 입단해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1932년 4월 일왕의 천장절을 기하여 전승축하기념식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투척, 일제침략 원흉을 처단한다.



* 농민독존 중



18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윤세주의 독립운동 이야기

영원의 총탄 윤세주

작가

글 이상훈
주요작품 슈퍼대디열, 초월

그림 서 씨
경력사항 '이프' 데뷔(2014)

작품

제목 영원의 총탄 윤세주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역사, 윤세주, 의열단

시놉시스

일제강점기 식민 조국의 소년 윤세주는 김원봉과 동향, 이웃 친구로 성장하면서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불태운다. 1919년 벌어진 거국적 3·1운동을 경성에서 목격하고 밀양으로 돌아와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곳에서 김원봉과 조우, 의열단을 조직한다. 의열단의 임무를 띠고 조선총독부 등을 폭파하고자 국내에 잠입했다가 안타깝게도 피체되어 7년형을 언도 받는다. 출옥 후 다시 중국으로 간 윤세주는 김원봉의 오른팔이 되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지도자로 수많은 독립투사를 키워낸다. 조선의용대의 지휘관이 되어 직접 전선에 나서 항일 전투에 참여하며 중국 팔로군과 함께 일제와 전투를 벌이던 도중 태항산에서 안타깝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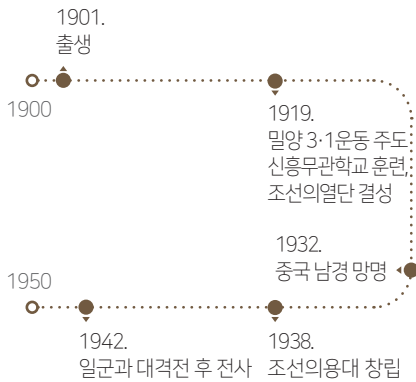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건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이고 의무입니다. 이 웹툰이 가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0년 충칭에서 윤세주는 동지 이정산에게 나의 청춘은 충칭의 봄과 같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충칭은 봄이 스치듯 지나가버리는 곳입니다. 청춘의 긴 날을 옥중에서 보냈던 윤세주의 그 말이 가슴에 꽃혔습니다."





윤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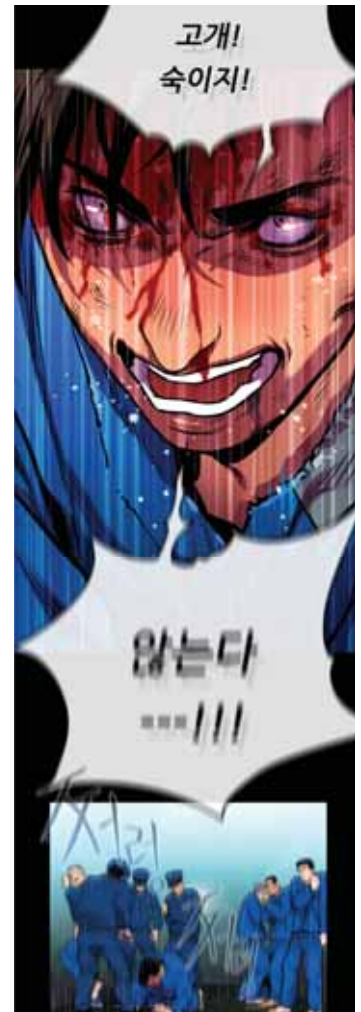
1901. 6. 24. ~ 1942. 6. 3.

서훈 : 독립장(1982)

1919년 밀양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후 만주로 망명하여 의열단을 조직하였으며 요인 암살용 폭탄을 반입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형을 받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립하고 1942년 중국 태항산에서 일군과 대격전 후 전사하였다.



일본은 잔혹한 폭력으로 전압에 나섰다.



101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윤치장의 독립운동 이야기

죽경계산 호랑이

작가

글 정운

그림 차현진

경력사항 아이큐 점프 데뷔(1998)

주요작품 얼음나라 에쿠, 오빠는 투명인간

작품

제목 청계산 호랑이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역사, 윤치장

시놉시스

1908년 12월 경성 감옥. 모진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내가 차디 찬 옥방 바닥에 내던져진다. 힘겨운 눈으로 창살 너머 하늘을 바라보는 이 사내는 성남 일대 의병을 이끌며 청계산 호랑이로 불렸던 '윤치장'이다. 1907년 8월 광주군 대왕면, 해가 저물자 강제 동원에 의해 벌목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치장은 대한제국군이었던 조우식의 시신을 수습해 가라는 통지서를 건네받고 시신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보름 사이에 마을의 풍경은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었다. 의병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죄를 물어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며, 저항하는 주민들을 비롯 아버지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의병장이 된 윤치장은 의병활동을 활발히 벌이다 체포되고 15년형을 마친 후 출소하여 농부의 삶을 살며 생을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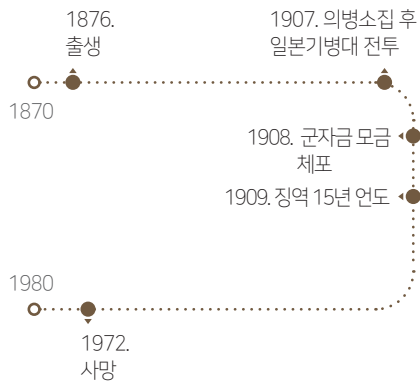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1907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이에 분개한 윤치장은 성남 관교 일대의 의병 70여 명을 규합해 일본 헌병과 경찰에 대항합니다.

청계산을 거점으로 맹활약을 펼치던 윤치장 의병 부대는 관동창의대장 민공호의 지령을 받아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 작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윤치장은 성남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삶이 웹툰을 통해 더욱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윤치장

1876. 6. 13.~1972. 12. 23.

서훈 : 애국장(1990)

1907년 경기도 광주 일원에서 의병 70여 명을 소집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총기로 무장하고 일 기병대와 전투를 벌이는 한편 군자금모집 활동을 하다 일본군에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윤희순의 독립운동 이야기

희순할미

작가

글 권숙돌

그림 정용연

경력사항 '하데스의 밤' 데뷔(1991), 부천만화대상 우수만화상 (2013),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 최우수상(2017)

주요작품 정가네 소사 1,2,3권, 목호의 난 : 1374제주

작품

제목 희순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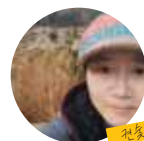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여성 의병장, 역사, 윤희순, 안사람 의병가

시놉시스

윤희순의 만아들 유돈상은 중국에서 독립단 활동 도중 일본경찰에 잡혀 갇은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 칠순 노모 윤희순은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걸음을 나선다. 젊은 시절부터 일경에게 아들의 목숨까지 위협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윤희순이었으나 정신적 기동 있었던 만아들 유돈상의 죽음 앞에선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 때가 왔음을 느끼고 일생록을 쓰기 시작한다. 유년시절과 결혼생활, 시아버지 유홍식의 이야기, 의병활동 등 파란만장한 삶을 적는다. 모든 가족이 죽고 손자 봉준은 고아가 되어 독립운동가의 정보연락 일을 맡게 된다. 1945년 9월 마침내 봉준은 삼촌 교상을 부축하며 고향땅을 밟는다. 봉준의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일생록이 쥐어져 있다.

작가의 한마디



권숙돌

"여성독립운동가 이릉을 몇 분이나 알고 계신가요? 모르긴 해도 대부분 몇 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무지한 것도, 여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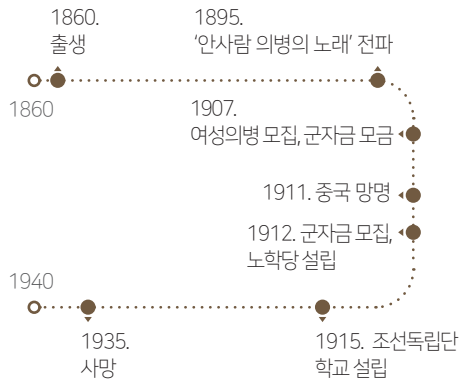
당대에 그들은 자신들을 기록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한번쯤 물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희순할미도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1961년 서울 청계천





윤희순

1860. 6. 25.~1935. 8. 1.

서훈 : 애족장(1990)

1895년 시부(妻父)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안사람 의병의 노래”를 지어 부녀자들이 부르게 하여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회 지도자가 되어 군자금을 모아 의병에게 제공,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는 조선독립단 활동, 항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동에 전력을 다했다.



21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이명하의 독립운동 이야기 반역의 산하

작가

글 정기영

경력사항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장

주요작품 총수

그림 김재성

경력사항 한국만화가협회 안산지부장, 웹툰스쿨 대표, 야설록프

로덕션 본부장 역임

주요작품 퇴마기사, 절대신검, 신유성호접검, 천풍전설, 독종

작품

제목 반역의 산하

장르 판타지,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현대물, 환생, 이명하

시놉시스

열혈의사 이명하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다. 1921년 3월 3일 중국 산둥 구에서 일본 경찰과 최후의 총격전을 치르다 장렬히 순국한 이명하의 사가 2019년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대왕게임즈의 경영진은 화신그룹과의 합병을 진행 중인데 이 합병으로 인해 회사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렬히 다투게 된다. 화신그룹은 이명하와 동료를 밀고한 노덕상이 해방 후에 세운 재벌회사로 자신들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싸게 인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합병을 반대하는 노조와 합병을 찬성하는 임원의 대립 속에 이명하는 나라를 뺏겼을 때의 구한말이 떠오른다. 현실 게임회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이명하와 의병활동을 하는 과거의 이명하 모두 정의를 위해 힘쓰고 친일에 항거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작가의 한마디



정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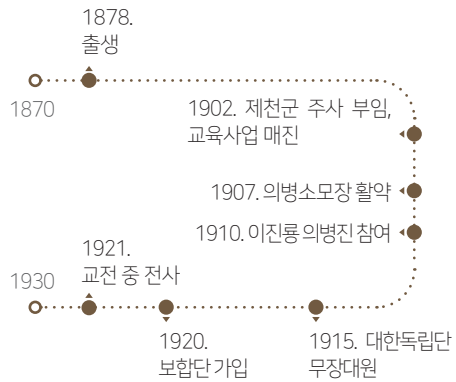
이명하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여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느낄만큼,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우리의 정신을 중 먹고 있음을 느낀다. 과거를 씨줄로 하고 현재를 날줄로 하여 선생이 꿈꾼 독립의 의미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김재성

열혈 독립운동가 이명하를 현대로 소환합니다. 1921년 3월 3일 중국 산둥구에서 일본 경찰과 최후의 총격전을 치르다 장렬히 순국한 이명하 의사가 2019년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상황을 흥미진진한 웹툰으로 풀어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명하

1878. 1. 23. ~ 1921. 3. 3.

서훈 : 독립장(1963)

1907년 2월 유인석 선생과 의병소모장으로 활약하고 반역자 청풍 단양 영춘군수를 참살하였다. 1910년 이진룡 의병진에 참여하였고 1919년 대한독립단 무장대원으로 국내진공전을 벌였으며 1921년 일경과 교전 중 전사해 순국하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이봉창의 독립운동 이야기



나! 이봉창

작가

글, 그림 김수박

경력사항 부천만화대상 일반만화상(2010), 독자만화대상 심사위원상(2010), 제1회 Red Awards 만화부문수상(2010), 프랑스 녹색당 '해바라기상' 수상

주요작품 아날로그맨, 내가 살던 용산, 사람냄새, 메이드 인 경상도, 아재라서, 날라리 X세대의 IMF 이야기: 타임캡슐

작품

제목 나! 이봉창

장르 판타지, 드라마, 액션

키워드 독립운동가, 모던보이, 항일의거, 이봉창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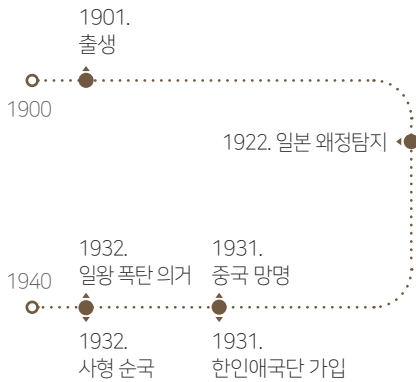
이봉창이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지만 마차도 의장병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봉창은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아니다. 나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범인임을 밝혔고, 순사에게 체포되어 경시청으로 연행되었다. 그는 ‘동경의거’를 일으키기 전까지 평범한 인물이었고, 오히려 ‘일본인’으로 보일 정도로 일본말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치 일본인과 같았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일본인 가게에서 일본어를 배운 그는 차별에 좌절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곳 역시 차별이 심해, 별일 아닌 일로 유치장에 갇힌다. 이 뒤로 1931년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간다. 그곳에서 김구를 만나 도쿄 거사를 모의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거사를 단행한다. 체포된 이봉창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하였다.

작가의 한마디



“이봉창 의사는 어릴 적 국사책에서 본 이후로 항상 꿈꿨던 인물입니다. 그 '쿨(Cool)'한 옷을 닮은 신비감을 더 하게 했죠. 이 세대의 청년과 중년의 삶을 살아가며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비애와 꿈, 그리고 그의 깨달음과 소명을 이 만화와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한 '사랑이었음을, 아주 매력적인 사랑이었음도.'”





이봉창

1901. 8. 10.~1932. 10. 10.

서훈 : 대통령장(1962)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왜정을 탐지하고 1931년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의 지도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후 일왕 격살을 선서하였다. 이후 폭탄을 휴대하고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1932년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 투척했으나 실패하였고 체포되어 사형으로 순국하였다.



23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이육사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천명기

경력사항 경향신문 만화작가상 당선(2006), 전)시사만화가협회

회장, 현 경산신문 편집국장 겸 시사만평 만화담당

주요작품 가로수 그늘 아래, 여아디여, 걸속이

작품

제목 초강(超強)의 사(士) 이육사

장르 판타지, 드라마, 액션

키워드 독립운동가, 저항시인, 이육사, 역사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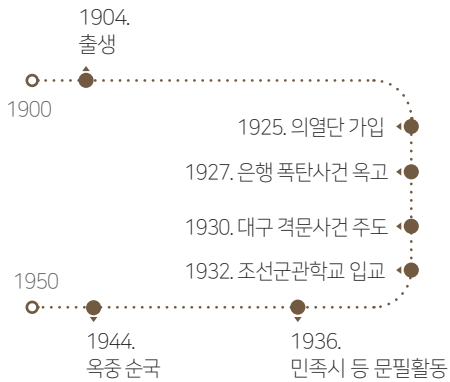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 출신으로 국내에서 신문기자와 시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육사는 다시 무장투쟁의 결의를 다짐한다. 중국으로 건너간 육사와 독립군은 국내 무기밀반입 계획을 세웠고 국경 근처의 일본군대 무기창을 공격해 일부 성공하였다. 확보한 무기는 중국 내 어딘가에 숨겨두고 귀국 후 계획의 일부를 흘리고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감옥에 갇힌 육사는 모진 고문 끝에 무기를 숨긴 장소를 말해주고 죽음에 이른다. 허나 이는 일본의 감시를 피할 미끼 작전이었다. 육사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며 일본군의 관심을 끄는 동안 독립군들은 다른 루트로 무기 반입작전을 실행하고 성공한다.

작가의 한마디



"광야, 청포도 등의 저항시인으로만 익숙한 이육사. 그는 김원봉이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세운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전 생애 17차례의 옥고를 치른 위대한 항일무장투쟁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웹툰을 통해 이육사가 스스로 시에 새긴 항일의식을 온 몸으로 실천해 낸,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초강(超強)의 사(士)는 초강력 선비라는 예는 육사 연구자의 수석을 제독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이육사
(본명 이원복)

1904. 4. 4. ~ 1944. 1. 16.

서훈 : 애국장(1990)

1925년 의열단 가입,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사건으로, 1930년 대구 격문사건의 주모자로 옥고를 치렀다. 1932년 중국 남경의 조선군관학교를 수료하였다. 민족시 30여 편을 발표하였고 1944년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24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이태준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이필

그림 벵커ONE

경력사항 '대통령이 된 바보' 데뷔(2003), 평창올림픽 현장 라이브 캐리커처 작업(2018), EBS 다큐프라임 삽화(2011)

작품

제목 불꽃으로 피어나다

장르 판타지,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이태준, 극화체, 역사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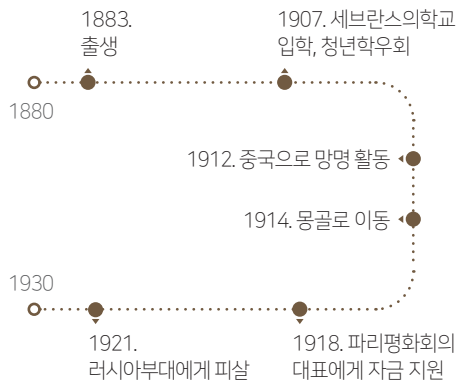
상해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자지트에 초추검이 된 형가리인 마자르가 폭탄을 가득 실은 차를 몰고 돌진해 온다. 김원봉은 그를 암살범으로 착각했다가 이태준을 되뇌며 혼절한 청년이 악인이 아니라 확인하고 치료를 돕는다. 이태준을 생각하며 회상에 잠기는 김원봉, 이야기는 이태준 선생이 남경으로 망명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기로 한 태준은 몇 번의 체포위기를 돌파하며 남경에 도착, 의사로 재직하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한다. 좀 더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태준은 몽고로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며 독립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다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들어가고 독립자금과 함께 폭탄전문가 마자르를 상해로 탈출시킨다. 러시아 백군을 유인한 태준은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이후 마자르가 성공적으로 제조한 폭탄으로 김원봉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대양 이태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슈바이처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이태준 선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과 그렇게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역사!"





이태준

1883. 11. 21.~1921. 2.

서훈 : 애족장(1990)

일제 강점기 몽골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 1907년 세브란스의학교에 입학, 학창시절 안창호의 권유로 청년학우회에 가입하였다. 1918년 9월 파리평화회의에 참여하는 독립청원 대표 김규식에게 독립운동자금 2천 원을 지원하는 등 군수자금 관련 비밀활동을 주로 하였다.



25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정정화의 독립운동 이야기

정
화
靖
和

작가

글, 그림 최인선

경력사항 '뽀비우스의 띠' 데뷔(1995), 알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전시(2003, 2014),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강의(2008-2009)

주요작품 시작합니다,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늙은 만화가 이야기, 달거리

작품

제목 정화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정정화, 몽환체, 역사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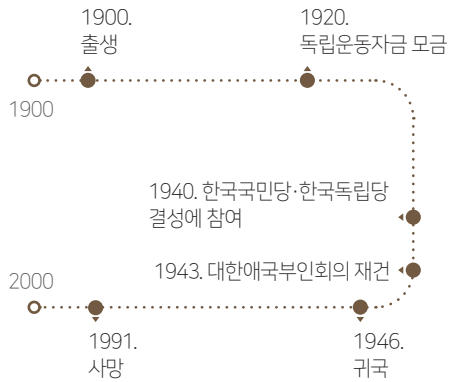
1920년 겨울 상해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정화는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1910년 결혼식을 올리고 대저택 백운장에서 나라의 상황에 절망적인 시아버지를 지켜보게 된다. 그 백운장은 어두웠고 이를 답답히 여긴 정화가 새벽에 산책 중에 집에 들어온 인왕산 호랑이와 대화를 하게 된다. 이를 본 시아버지는 정화가 보통이 아니라고 느끼고 살갑게 대하며 나라 걱정을 늘어놓았고 소꿉친구였던 남편과도 편하게 사상에 대해 공유하였다. 그러다 독립운동을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은 상해로 망명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정화. 고달픈 상해 임시정부 살림이 시작된다. 그러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얼마 안 되는 자금을 갖고 상해로 돌아가고 남편이 따뜻하게 맞아해 준다.

작가의 한마디



"정정화의 장강일기를 읽으며 이렇게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임시정부 내부의 현실적인 삶, 그곳을 지나쳐간 독립투사들의 삶, 그리고 정정화 선생님의 자궁조달 임무와 임시정부의 이동 과정 등 24편의 이야기로 각매개기는 턱없이 자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숨을 바치고 제 입장에서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10대와 20대를 조명하여 어떻게 독립운동가로 성장해 갔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정정화의 삶이 제 만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정화

1900. 8. 3.~1991. 11. 2.

서훈 : 애족장(1990)

1920년 상해로 망명하여 1946년까지 임시정부에서 요원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독립운동자금 모금활동을 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1940년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 결성에 참여, 1943년에는 대한애국부인회의 재건, 조직에 참여하여 훈련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9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조명하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조명하

경력사항 '침묵의 강' 데뷔(1997), 백인의만화모임 '백만인' 회장 (2012), 예술의전당 황금문명전 '스키타이' 만화전시(2011)
주요작품 유년의 단상, 광개토대왕, 스펙트럼, 역류, 종의기원(학습 만화), 목민심서(학습만화)

작품

제목 조명하

장르 드라마, 액션

키워드 독립운동가, 조명하, 단독의거, 대만

시놉시스

1905년 5월 11일 황해도 송화군에서 태어난 조명하는 유년시절 아버지에게 조국의 수난사를 들으면서 조국애를 일깨우며 자란다. 아들의 총명함을 알아본 아버지 조용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보통학교에 보내주고 스승 고익균을 만난다. 고익균은 조명하의 대범함과 도전적인 성격을 알아보고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조명하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 항일활동을 펼치다가 일왕의 장인 구니노미야를 처단하고 체포된다. 조명하는 1928년 7월 18일 타이완 고등법원 법정에서 열린 특별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순국한다.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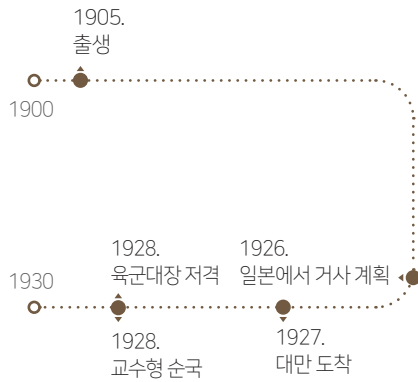
"한중의 모래알처럼 기적 속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무명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며 조명하의사의 독립운동가 웹툰을 작업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그분을 모래알이 아닌 산맥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작은 소망이 독자 모든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꼼짝 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발포한다.





조명하

1905. 4. 18.~1928. 10. 10.

서훈 : 독립장(1963)

1926년 침략원흉을 주살할 목적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다시 1927년 대만에 도착. 1928년 대만에서 일본 왕의 장인이자 육군 특별검열사인 구니노미야를 저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피체되어 대북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국하였다.



27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조소앙의 독립운동 이야기

독립군 바리

작가

글, 그림 송동근

경력사항 데뷔(1997),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대상(2012)

주요작품 어린이를 위한 경제의 역사, 피터히스토리아

작품

제목 바리의 독립군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시대물, 조소앙, 파리

시놉시스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출된 조용은(조소앙). 파리에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파리위원부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기 위한 총력 외교활동을 펼치지만 결국 무산되고 만다. 울분에 찬 감성과 일부 동지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조용은과 남은 동지들은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만국사회당대회에서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는 등 유럽에서의 외교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 모인 재불한인들과 파리위원부 위원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인 다수가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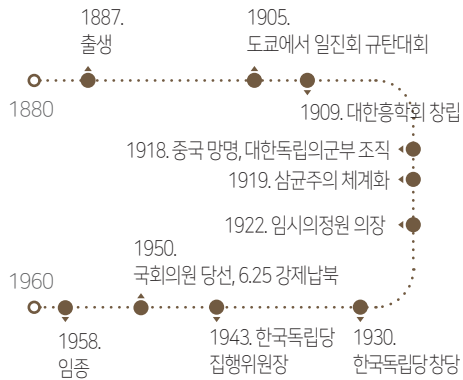
작가의 한마디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가 조소앙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특히 '파리위원부'의 존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활동이자 기록도 많지 않았지만 '파리위원부'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작업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조소앙
(본명 조용은)

1887. 4. 10.~1958. 9.

서훈 : 대한민국장(1989)

중국에 망명해 독립운동노선이자 광복 후의 새로운 국가건설 방략을 제시한 삼균주의를 정립했다. 1919년 3·1운동 후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헌장기초위원, 심사위원, 임시의정원법기초위원, 초대 국무원비서장, 국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최재형의 독립운동 이야기

동토의 별

작가

글, 그림 김연승
경력사항 대전만화협회 설립발기인, 전 대전 만화웹툰창작센터 대표,
‘뽕드롭’ 데뷔(2002)
주요작품 뽕드롭, 메탈히어로, 숨길 수 없는, 학습만화 다수

작품

제목 동토의 별
장르 드라마, 액션, 미스터리
키워드 독립운동가, 안중근, 최재형, 의병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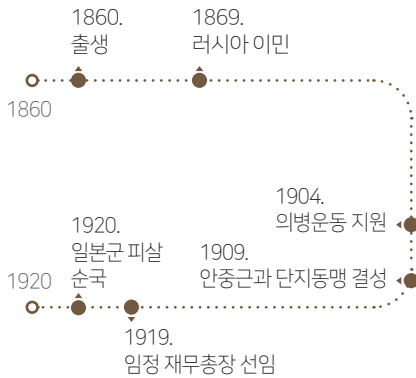
여순형무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에 대한 심문이 진행 된다. 안중근이 언급한 그의 배후 “김두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이야기는 과거로 플래시백 된다. 함경도일대에서 러시아와 러시아 부대에 편입된 충의대가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고 최재형의 러시아와 충의대에 대한 보급행렬은 조선의 왕실과 양반을 비판한다. 일본의 발전한 모습에 순응하는 동료에 비해 최재형은 지극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이범윤을 만나 의병에 참여하게 되고 안중근(안응칠)을 만나 그를 도와준다. 하얼빈으로 떠난 안중근은 거사에 성공한다. 이후 항일신문을 발행하며 계속적인 활동을 해온 최재형은 소련을 거쳐 연해주에서 대한민국의회에서 외교 부장에 선임된다. 아들의 사망 소식과 강화조약 소식에 집으로 돌아간 재형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총살로 숨진다.

작가의 한마디



“이 웹툰은 독립운동가의 항일활동을 재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시대속에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했던 인물들의 갈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항일활동에 임했지만 철학과 체계가 잡혀가고 점점 적극적인 독립운동가로 변해가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제목은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살해 후 여순형무소에서 배후를 심문받을때 언급한 ‘김두성’이라는 가상 인물의 별 성자를 따와서 ‘동토(연해주)의 별’이라고 붙였습니다.”





최재형

1860. 8. 15. ~ 1920. 4. 7.

서훈 : 독립장(1962)

1869년 러시아로 이민 간 후 1893년 러시아 최초 한인 면장이 된다. 1904년 러시아 연해주동의회 조직해 의병운동을 지원하고 1909년 안중근과 단지동맹 결성,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1920년 일본군에게 피살되어 순국하였다.



2019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한백봉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이규석

경력사항 '우주사관학교' 데뷔(1991), 일요신문 만화공모전 우수상 (2013)

주요작품 좋은남자

작품

제목 사람 냄새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한백봉, 3·1운동,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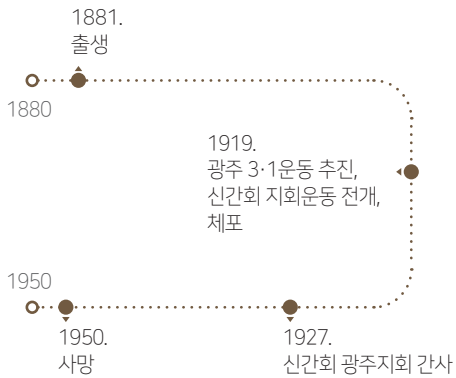
1919년 1월 20일, 한백봉은 마음이 무겁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고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나라 곳곳에서 일제의 만행과 탄압에 시름하는 국민들, 그리고 일제에 맞서 싸우는 독립군들의 처참한 소식은 그를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니시하라" 일제의 창시개명 당시 한백봉이 개명한 이름이다. 그러다 고종이 죽자 영원히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고종의 장례식이 끝난 후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 3·1만세운동 시위에 참여한다. 다음 날 광주의 유지들과 조선 독립의 취지에 공감한 한백봉은 자신의 고향에서도 3·1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작가의 한마디



"웹툰 속 박하영은 광복단의 일원입니다. 1919년 광복단원 이종국의 밑고로 광복단은 해체되고, 박하영의 아버지는 밑고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배신자 이종국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녀 친일세력들을 저단하던 박하영 가상인물인 박하영을 통해, 그리고 한백봉을 통해 일제와 그에 협력하는 친일 세력들의 행적을 고발하는 것이 이 웹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백봉

1881. 8. 28.~1950. 10. 30.

서훈 : 애족장(1990)

1919년 광주군 돌마면 율리의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여 시위운동을 진행하였다. 민족협동전선 운동인 신간회 지회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27년 신간회 광주지회 간사를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손영희: 독립운동가 일제 강점기 3.1 만세운동의 주역.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허은의 독립운동 이야기

먼동이 틀때

작가

글, 그림 차성진

경력사항 '하얀천사' 데뷔(1972), 우리만화연대 회장

주요작품 바우덕이, 칼레아나

작품

제목 먼동이 틀 때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여성독립운동가, 허은, 시대물, 역사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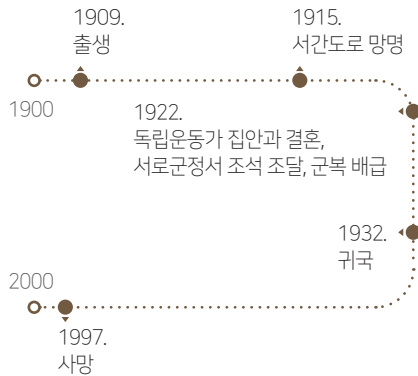
1915년 허은은 부친을 따라 서간도로 야반도주를 하게 된다. 허 씨 집안의 항일 운동가 왕산 어른이 순국한 뒤 줄곧 일경들에게 시달리던 일가는 일제히 짐을 쌌다. 그리고 집을 바꿔 가며 일경의 눈을 피해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열여섯 살 어린 나이에 이 씨 집안으로 시집가고 난 뒤 독립운동 하시는 시어른들 뒷바라지 하면서 낯선 간도 땅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억척스럽게 개척해 나간다. 1932년 안동으로 귀향하지만 가산은 독립운동에 모두 소진하여 빈곤한 삶을 산다. 1945년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은 이루어졌으나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독립운동 세력은 탄압과 홀대의 대상이 되고, 6.25전쟁에서 남편마저 유명을 달리하자 가세는 더욱 기울어져 홀로 7남매를 울곧게 키우는데 힘쓴다.

작가의 한마디



"웹툰의 배경은 한반도가 일본, 중국, 소련 등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격동의 시기입니다. 1932년 사망한 독립투사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이 기록한 서간도 망명생활, 항일투쟁, 환국과 해방 등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웹툰 속에 담았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허은

1909. 5. 9.~1997. 5. 19.

서훈 : 애족장(2018)

1915년 일가족과 서간도로 망명하여 국치기념일과 개천절 등에 참가해 국치가와 애국가를 부르며 독립의식을 깨달았다. 1922년 이상룡의 손자 이병화와 결혼한 뒤 1932년 귀국할 때까지 서로군정서 회의 때 조석을 조달, 군복을 만들어 배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31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홍범도의 독립운동 이야기

洪汝千 範圖

작가

글, 그림 김진

경력사항 일본 동아시아 만화 SUMMIT 만화 아카데미상 대상(1995),
<숲의 이름>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저작상 수상(1997),
<바람의 나라>문광부 주최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1999),
<바람의 나라>대한민국 만화대상 대통령상 수상(2008)
주요작품 바람의 나라, 푸른 포에닉스, 1815, 황혼에 지다, 레모네이드
시리즈, 숲의 이름, HERE 등 다수

작품

제목 홍여천 범도

장르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홍범도, 전쟁, 역사

시놉시스

1868년 戊辰(무진)년에 평양에서 출생한 홍범도는 평양 친군서령에서 곡호수(군악대원)로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1895년 을미의병부터 의병으로 활동하였고 1907년 정미의병 때에는 삼수·갑산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쳤다. 이후 러시아로 건너가 권업회 활동 등을 했으며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을 대승으로 이끌었다. 1921년 러시아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었으며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1929년부터 연금 생활 중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강제 이주당한 후 1943년 향년 76세로 사망했다.

작가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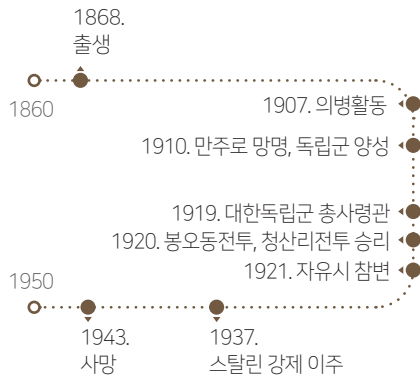
"그래 알타이는 눈이 정말 많이 내렸대웠지요. 아마도 이런 서늘한 만년을 예정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그 길 한 칸 한 칸 따라 걸어왔지만 얼마나 함께 걸었는지, 어느 정도 만나 보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봄을 기다리는 중이지만 세월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래도 남께서는 만감하시고 부디 조국에서 다시 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병들이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에
모든 것을 묻어둡니다



홍범도

1868. 10. 12. ~ 1943. 10. 25.

서훈 : 대통령장(1962)

1907년 함남 갑산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고 1920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 청산리전투에서는 북로군정서와 더불어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1921년 독립군들의 러시아 이동 후 자유시 참변을 겪었으며, 1937년부터 스탈린의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후 1943년 크질오르다에서 사망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코자크 사람들은 죽어서 뿔 뿔이 되어
관장 위로 무럭무럭 나르고
일본인들은 죽어 야스쿠니에 가서
전우를 또 만나고 노래한다지만



대장.



그들 중에서
총을 거두고



모든 일무에서 배지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작자의 고향.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향으로.

32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황애덕의 독립운동 이야기

조선,
황애덕을 만나다

작가

글 Nicky

주요작품 불멸

그림 ★9

주요작품 고시거, 감금

작품

제목 조선, 황애덕을 만나다

장르 순정, 판타지,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황애시덕, 황애덕, 황애스더, 성남 지역 독립운동가, 타임슬립, 아이돌, 역사

시놉시스

황애덕(69세)은 1960년 3월 1일 중앙여자고등학교 주최 3·1운동 선도자 제1회 찬화회를 주관하며 참석하게 된다. 이때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며 회상에 잠기게 되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추억한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담겨 있다. 과거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송죽회' 활동을 하던 황애덕은 선교사의 권유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일본 체류 중에도 김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2·8독립선언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독립선언서를 기모노 속에 숨기고 조선의 경성으로 들어오게 된 황애덕은 미래에서 온 아이돌 조선과 만나게 된다.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조선은 황애덕을 따라 다니며 느끼는 바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일경의 급습으로 총에 맞고 쓰러진 조선은 의식이 흐려지고 현재로 돌아온다.

작가의 한마디



Ni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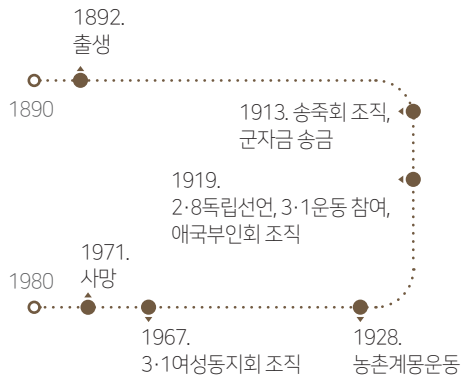
"고난과 좌박의 그 시절,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펼쳐나간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열렬하던 그 움직임을 독자님들이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웹툰을 접한 독자님이 '우리가 왜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아이돌 멤버를 주인공으로, 치열한 독립운동이 펼쳐지던 현장에 도착한 주인공이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황애덕

1892. 4. 19.~1971. 8. 24.

서훈 : 애국장(1990)

1913년 김경희, 안정석 등과 비밀결사인 송죽회를 조직하여 중년층 여성과 젊은 층 여성을 포섭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회비와 자수 등을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여 독립운동기지로 송금하였다. 1919년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3년 징역형을 받았다.



33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가네코후미코의 독립운동 이야기



작가

글, 그림 이루다
경력사항 '조선남녀상열지사조작단' 데뷔(2018)

작품

제목 나(拿)비(悲)
장르 지식, 순정, 판타지, 드라마
키워드 독립운동가, 시대물, 판타지, 가네코후미코

시놉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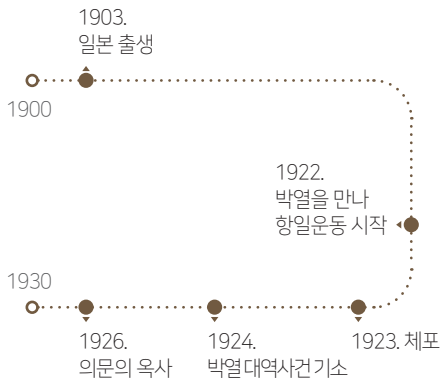
1926년 가네코후미코의 가매장지에서 가네코의 유골을 꺼내는 걸 지켜보던 유령.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를 지켜보다 시공간 이동으로 1916년 자살하려던 어린 후미코를 발견한 이후 공감과 위로로 독립운동가 후미코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3·1운동과 박열과의 만남, 독립운동, 재판과정을 모두 겪고 자신의 마지막 날을 직감한 유령이 잠에서 깬 듯 눈을 뜬 곳은 평범한 가정집. 화목한 가족과 재회한 후미코 뒤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 어느 무덤가 들꽃 위에 앉는다.

작가의 한마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웹툰을 그리면서 저 역시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분들도 독립운동가 분들을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네코
후미코

1903. 1. 25. ~ 1926. 7. 23.

서훈 : 애국장(2018)

일본의 아나키스트로, 1922년 박열을 만나 항일 운동에 투신하였다. 일왕 부자를 암살하기 위해 의열단과 연계한 폭탄 반입을 추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26년 의문의 옥사하였다. 유해는 경상북도 문경에 있다.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함께 만든 사람들

독립운동의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콘텐츠사업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가 어느덧 2019년 한 해의 활동을 끝내고 그 첫 결실을 맺었다. 이 의미있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2018년 11월 웹툰추진단이 꾸려졌고 1년 동안 웹툰화 독립운동가 선정, 만화가 섭외, 자문위원단 구성, 전시회 및 각종 행사 진행, 다음웹툰 업무협약, 만화진행 마감 등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33인의 독립운동가 웹툰이 완성된 시점, 1년의 행보에 크고 작게 기여한 웹툰실무진에게 남다른 애정이 담긴 소감 한 마디를 들어보았다.

새로운 한류물 만들어가는 K웹툰,
아제 빛나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웹툰에
당했습니다. 성당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기양 코디네이터

기억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는 사라집니다.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어 선물합니다.
100번째 독립운동가 웹툰은
남북합작이 어떨까요!
이도현 기획총괄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봤던 웹툰이,
아제 우리의 역사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요?
멋진 작품 탄생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윤영미 창작지원부 사원



여러은 작업이었지만
가족처럼 자넨 성남문화재단
웹툰가족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재밌게
독립운동가 웹툰을 만날 수 있도록
센스있게 편집하겠습니다~

이다송_웹툰PD

사그라들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아 웹툰으로 시민들께
펼쳐 보이는 기획을 응원해 준 성남시민들께 감
사드립니다. 100인의 독립운동가 웹툰 이야기가 완
결 되어 성남을 수호하는 한 정신으로,
'충격으로 정착되기를...그리고 ICT중심도시
성남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발하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한별_코디네이터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신
독립운동가를 웹툰으로
소개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평화와 행복이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성민_웹툰PD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는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멋진 기획입니다. 역사와 웹툰이 결합한
공공콘텐츠의 새 장을 열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민혁_창작지원부 부장

뜻깊은 몰래 뜻깊은 일을 웹툰팀과 같이
해낸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본다"
김동영_창작지원부 과장



미디어

2019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주요 방송 보도

105

KBS 경인
연합뉴스TV
SBS

주요 언론 기사

106

연합뉴스
아주경제
뉴시스
헤럴드경제
NSP통신
분당뉴스
아시아타임즈
중도일보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성남데일리
아시아일보



언론이 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주요 방송 보도



2019. 8. 12 KBS 뉴스9(경인)

웹툰 작가 33인, 독립운동가 33인 그려 연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1269>



2019. 8. 13 연합뉴스TV

'100년 항일의 역사' 웹툰으로... 33인 조명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13001500038/?did=1825m>



2019. 8. 14 SBS 12뉴스

'독립운동가 33인' 삶과 정신 웹툰으로 연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95579&plink=NEW&cooper=SBSNEWSSECTION

웹툰 캐릭터전

2월 27일 뉴스

성남시청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전시회

성남시청서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전시회



웹툰 자문위원회

3월 28일 헤럴드경제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준비 '착착'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준비 '착착'



청소년웹툰 공모전 개최

6월 11일 아시아타임즈

성남문화재단,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개최

성남문화재단,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개최



재단-다음웹툰 업무협약

8월 7일 중도일보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준비 완료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준비 완료



언론이 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웹툰 프로젝트 기획기사

8월 8일 국민일보

잊혀진 독립운동가 33인, 웹툰으로 다시 만난다



청소녀웹툰 공모전 시상식

8월 16일 성남데일리

성남문화재단, 15일 청소년 창작웹툰 공모전 시상식



기자간담회

8월 13일 오마이뉴스

허영만, 천명기, 박건웅... 44명 작가들 독립운동가 웹툰 연재



웹툰 연재

9월 4일 아시아일보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2차 연재 시작



대한민국 독립운동 100년



성남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만화가들과 함께, 이 땅의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웹툰으로 그려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를 재발굴하고 선열들의 업적을 기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를 엽니다.